朝鮮日報
夕刊 八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全國統一工作爲해 蔣介石氏來滬!

王寵惠氏에게 再次南下委囑 胡漢民氏의 北上勸誘

【上海七日發同盟】行政院長 蔣介石氏는 昨六日午後六時 突然飛行機로 夫人과同伴하야 來滬하엿다 同夜即時 胡漢民氏宅에서 王寵惠氏와 會見하고 憲法問題、西南問題에 關하야 여러가지로 懇談을 逐하엿다 蔣氏今回의 來滬는 地方政情의 視察을完了하고 五日 南京에 歸着한 直後의 일인만콤 그精力的活動은 驚嘆할만하다 하는데 虹橋飛行場에는 要人多數가 出迎하엿다 來滬의 主要目的은 中央及西南和解의 調停者인 王寵惠氏와의 會見인데 蔣氏는 王氏가 再次南下하야 胡漢民氏의 北上을 說服하기를 希望하기爲하야 禮를 厚히하야 自己가 스사로 王氏를 訪問한것으로 觀者는 地方政情視察의 主要目的은 貴州雲南工作에잇서 西南實力派를 牽制하고 더욱 國民政府에 大總統就任을 압두고 一齊 廣東實力派와 附近軍閥과의 合作工作을 遂行하야 西南를 中心으로 西南文治派를 懷柔하려하는것으로 蔣介石氏는 全國統一을 圖할意圖이다。(寫眞은 蔣介石氏)

『東亞安定力이란 他國侵略을意味』

有田外相議會演說에 失望한 南京中國日報論評

【南京七日發同盟】昨六日 貴族院에서 行한有田外相의 演說에 對하야 南京中國日報는 左와如한論說을 揭載하엿다

有田外相의 演說을 熟讀하면 吾人은 이것이 오래동안 中國國民政府當局과 懇談하여온 것인가하고 失望을 感한다 有田外相은 一方에잇서서 兩國民族相互의 友交를 圖한다고하면서 他方에 東亞 安定力이實을 暴한다고한다 東亞의 安定力이란것을換言하면 武力으로서他國을 侵略하는것을 意味하는것이아닌가 그러하면 吾人은矛盾을 感하지안흘수업다 所謂廣田三原則은 中國은 當初부터 承認하지안헛고 또 將來에도 承服할수업다고 斷言한다 有田外相은 日蘇關係에對하야 蘇聯의態度를責하나 吾人의 보는바에 依하면 現在의 日蘇關係는 日本이 滿洲國을 基礎로 일을 이르키는感이잇다

最近 蘇蒙協定이 締結된것은 日本의 侵略政策의 反應으로 實現된것이다 그리고 廣田前外相에게도 明言한것은 中國은如何한 國家의 特殊地位라도認定할수 업다는것이다 萬若日本이 日中國交를 圖하려하면 特殊地位의 觀念을 放棄하여야 할것이다

總督府의豫算總額 三億二千九百萬圓

新鐵道計畫과特高警察擴充等 今日追加豫算正式發表

今年度總督府特別會計 第二號追加豫算과 實行及追加豫算總計는 八日總督府에서 發表하엿는데 左와如하다

第二號追加豫算은 總額一千一百十二萬圓인데 前議會解散前에 決定한 第一號追加及 實行豫算 現三億一千七百八十七萬圓을合算하면 今年度豫算總額은 實로 三億二千九百萬圓의 巨額에 達하야 空前의 膨大豫算이다 第二號追加豫算이 千百萬圓에 達한것은 所謂中央線이라는 新鐵道計劃에依한 鐵道事業費와 이에伴한 南朝鮮三港의 大修築計劃及 京釜、京義兩大幹線複線의 補强工事費를 全部計上하게 된것이다 又特高警察擴充費 三十八萬圓은 內務省의 高等警察擴充計劃에 呼應하야 國內高等警察機構의 擴充을 圖하는 外事警察의 充實과 思想犯保護觀察法施行等에 關한件이 二、二六事件以後 緊急히 必要를 느끼게되야 新規로 豫算을 編成要求하게되것으로 二號追加豫算은 全額이 現下非常時局에 關한豫算인것은 別項表記한바와如하다

區別	第二號追加豫算額	旣者決定第一號追加及實行豫算現額	計十一年度豫算總額
		萬圓	萬圓
歲入經常部	—	二六九、九八	二六九、九八
歲入臨時部	一一、一二	四七、八八	五九、〇一
普通歲入	—	九一	九一
補充金	—	一二、九一	一二、九一
公債金	八、八二	二二、八〇	三一、六二
前年度剩餘金繰入	二、三〇	一一、二五	一三、五六
歲入合計	一一、一二	三一七、八七	三二九、〇〇
歲出經常部	八	二三四、〇五	二三四、一四
歲出臨時部	一一、〇四	八三、八一	九四、八六
歲出合計	一一、一二	三一七、八七	三二九、〇〇

右第二號歲出中主要한事項은左와如하다

鐵道建設及改良費의追加	七、三三萬圓
釜山及馬山港海陸聯絡設備	一、五〇
城津多獅島汀籠港修築	一、一四
麗水港防波堤延長及繼上	四〇
特高警察機關充實	三八
冷害罹災者救濟土木工事	一八
國有財產法施行	

在留日本人은無事

鈴木代理公使公電

【巴里六日發同盟】巴里駐箚日本大使館은 六日에디오피아駐箚日本代理公使鈴木氏로부터 아디스아바바에잇서서 日本人의 安否에 關하야 公電을接受하엿다 右公電에依하면 在留日本人은 모도無事하다하는데 公電內容은左와如하다

에디오피아在留 日本人六名은 都外公使館에 避難하야 모도無事하다 公使館은 暴民暴徒의襲擊을 바덧스나 모도擊退하엿다 首都의治安은 伊太利軍의 入城에伴하야 漸次回復되여 治安回復되게되엿다 그러나 在留日本人은 全部無事하다 그리고 지부티港에 達하는 에디오피아鐵道는 佛伊兵護衛下에 目下安全히 運行을 繼續하고잇다

眞崎大將의 手術後經過良好

【東京電話電通】眞崎大將은慢性盲腸炎手術을 박기爲하야 去一日 陸軍衛戍病院에 入院中이든바 七日午後二時半 竹內一等軍醫正의執刀로 手術을 行하엿는데 手術後의 經過는良好하다

萬事休矣의에國 反皇帝革命勃發

【東京電話電通】七日鈴木에디오피아代理公使로부터 駐佛大使館經由 外務省에 達한 公電에依하면 하일레·셀라시에一世의 蒙塵에依하야 에디오피아에는 이에 元首도 政府도업고 國民은 모든反抗手段을剝奪當하야 萬事가休止된狀態인데 靑年革命黨을中心으로한 反皇帝의 革命運動은 百五十名의 靑年指導者下에 아디스아베바를 中心으로 勃發되엿다 佛國公使館及 商業地區等은 兵火에依하야 全部灰燼되엿는데 日本人經營의 唯一한商社 三萬商店(神戶三萬商店支店)도 드듸여 掠奪 燒却되엿다

對蘇關係의危機 打開할確信잇다

자못困難한問題이나 이確信으로組閣引受 廣田首相議會서明言

【東京電話電通】廣田首相은 岡田前內閣當時外務大臣으로 自己의 在任中은 戰爭을 惹起케 하지안흘것이다라고 述하야 協和外交의主旨를明白히하야 相當히 社會에 反響을 與하엿는데 八日 衆議院豫算總會席上에서 民政黨의 堤康次郞氏의 對蘇關係에 關한 質問에對하야

對蘇關係는 자못困難한問題이나 적어도 自己는 對蘇關係의 危機를 打開할수잇다는 確信下에 組閣을 引受하엿다 크게義意잇는말을 明言하엿다 (寫眞은 廣田首相)

增兵計畫을含한 米國陸軍豫算案

上院을通過、大統領에게廻付 總額一億千六百萬圓

【華盛頓七日發同盟】米國上院은 陸軍兵員數를 十六萬五千으로增加할 計畫을包含한 陸軍豫算案(總額一億一千六百萬弗)을 七日에 可決하엿다

同案은 이미下院을 通過하엿슴으로 右에依하야 마츰내確定되엿스며 即時大統領에게 回附되엿다 그리고 上院은 右에繼續하야 五億九百萬弗海軍豫算案의 審議를 開始하엿다 今週中에 通過될海軍豫算討論에當하야 上院軍事委員會데라드나이委員長은 左와如히 無謀한 軍備擴張競爭을 惹起할 愚를 强調하야 米國은 自進하야 軍備競爭을 惹起할것을 避하지안흐면 안되다 바야흐로 日米兩國은無謀한 軍備競爭을 開始하고잇다 事實問題로 日本이 假令米國의 二十倍의 海軍力을保持하고잇다하드래도 米國本國海岸의 百哩以內에 近接하기는 不可能하다 그리고 米國도 如何히 그海軍力을 强大케하드라도 日本을 侵略할수는업다 하야 注目을끌고잇다

議會消息

七百二十萬圓 實行豫算보담膨脹

【東京電話電通】政府는 七日院內閣議를 거처 昭和十一年度第二號追加豫算三百九萬九千圓을決定하엿슴으로 來週 衆議院에提出하기로 되엿는데 이에 이미提出한 實行豫算을 加算하야計上한 七十九萬七千圓及 實行追加額三百三十一萬二千圓을 合計하면 七百二十萬九千圓을 實行豫算보담 膨脹할터이다

豫算總會開會

白熱的論戰展開

【東京電話電通】衆議院豫算總會는 本會議와併行하야 今八日부터 開會되엿다 二十三億圓의膨大豫算을 俎上에올려노코 馬場財政의 中心題目인 增稅問題、低金利財政政策等을 비롯하야 財政과 國防의調和、產業統制問題、農村問題、外交政策刷新等 國政全般에 亘하야 一問一答의形式으로써 論戰이 展開케되엿슴으로 豫想外의 波瀾을 惹起할는지도 알수업는데 僅四日間의 審議期間으로 果然 現內閣의 政策에對하야 充分한 檢討를할수잇슬는지 또는 國民의總意가 滿足히 表現될는지 자못疑問이나 各派는 非常한 熱意로서 各代表者를 보내여 白熱的論戰을 展開하리라고 觀測된다

鮮滿拓殖會社 設立要項案

資本金二千萬圓、本店은京城

總督府에서는 二年前부터 西北朝鮮及 滿洲國에 朝鮮人의 移住를 獎勵할目的으로 鮮滿拓殖株式會社의 設立을 計劃하든바 會社事業의 性質上 政府의 補助가 必要함으로 特別議會에서 昭和十一年度부터 向後八年間 總額三百四十萬圓의 豫算外 國庫負擔의 契約을 行할件의 承認을 求할手續을밟아 特別議會後 同會社의 設立을 實現할豫定인데 그要項은 左와如하다

鮮滿拓殖株式會社 設立要項案

一、會社의 名稱及所在地

鮮滿拓殖株式會社라고 稱하고 本店을 京城에 置함

一、會社組織大綱

(一)勅令에 依하야 設立하는 特殊會社로 朝鮮總督이 此를 監督함

(二)資本金을 二千萬圓으로하고 此를 四十萬株에 分하야 一株額面五十圓으로함 第一回拂込八百萬圓(資本額의五分之二)로함

(三)株式은 記名式으로 日滿兩國人에 限하야 所有할수잇게함

(四)株式은 一般民間에서 此를 募集함

(五)社債는 拂入資本金의 三倍를 限度로함

(六)會社存續期間은 此를 三十個年으로함 但朝鮮總督의 認可를 어더 延長할수잇게함

(七)役員 總裁一名 理事三名以上 監査二名以上으로하되 總裁는 朝鮮總督이 此를 命하고 理事는 株主總會에서 選擧한 二倍의 候補者中에서 朝鮮總督이 此를 命하고 監事는 株主總會에서 此를 選任함

目的 西、北朝鮮에잇서서 朝鮮人移住者를 獎勵하야 必要한 拓殖事業及 滿洲에잇서서 朝鮮人移住者에 對하야 必要한 拓殖을行함

一、事業

(一)西、北朝鮮에잇서서 朝鮮人移住者를爲하야 必要한 土地의取得經營及處分

(二)西、北朝鮮에잇서서 朝鮮人移住者에 必要한 資金의 供給

(三)西、北朝鮮에잇서서 朝鮮人移住者를 爲하야 必要한 建築物의 供給

(四)西北朝鮮에잇서서 朝鮮人移住者를爲하야 必要한 土地의委託에依한 經營管理

(五)其他 西北朝鮮에잇서서 朝鮮人移住者를爲한必要한事業

(六)滿洲國에잇서서 朝鮮人移住者에 對하야 必要한 事業을 經營함을 目的으로하는 會社의 株의引受及事業資金의 供給

朝鮮總督府의 援助

會社가配當할수잇는利益金이 拂込資本金에對하야 大略年六分에 達치못할 時는 設立時부터五個年限 拂込資本金의 六分을限度로하는不足額을 補給함

南朝鮮地方農民을 西北朝鮮으로!

十五年間、十六萬戶、八十萬名 滿洲國으로移民計畫

鮮滿拓殖會社는 鮮內의 南部地方農民을 西北朝鮮에 移住식히어 農業人口의 調節을 圖하며 又在滿朝鮮農民의 統制及 新規로 朝鮮農民을 滿洲에 移住식히려는 것이 目的으로 其間總督府에서 關東軍 大使館、拓務、陸軍兩省等과 具體的問題에對하야 二年間이나 折衝交涉한結果 大體의 成案을엇게되야 四月一日의 對滿事務局會議에서 最終的可決을지은바 八日에總督府에서 發表하엿다 新會社創立에關한 豫算이 通過되는대로 六月中에는 此會社는 組織을 完了하게되어 이會社는 經營事業이 大部分滿洲에서 하게되는關係上 新京支店에 滿洲國法人 即鮮滿拓殖公司라는 別法人을 組織하야 事業을 代行식힌다 그러나此는 全然一身同體로 內容에는 何等다름이업다

又此會社에 依하야 實施할計劃으로 滿洲에잇서서 十五個年間에 十六萬戶 八十萬名을 收容할計劃이다 또 朝鮮農民의 自作農創定及小作農의安定 營農資金의貸付等을한다 移民의 敎育及衛生施設等은 行政機關으로서 總督府에서 別個의 豫算으로 編成하야 每年實施하게되엿다

田中警務局長談

對滿事務局長의 田中警務局長은 鮮滿拓殖會社新設에 關한大綱을 發表하는同時에 左와如히 感想談을 하엿다

「移民會社設立計畫은 四年前부터 말이되어왓는데 問題가具體化하여가지고도 벌서 滿二年이되엿다 其間陸軍、拓務、財界各方面과 累次의 折衝을 한結果 四月一日의 對滿事務局의 會議에서 最終決定을 보앗는데 六月에會社創立과 同時에 곳 事業經營에 着手할것이다 其間各方面과의 意見交換 折衝中 참말답답도 여러가지 苦心이 만햇스나 今日達成을 보게된것은 반가운일이다」

新內閣財政政策의動向

物論에오르는 增稅案의內容 (二九)

徐椿

이제 將來할 增稅案의 內容을 推測하는 意味로 增稅又는 新稅의 可能性잇는者를 順次로 列記해 보면 如左하다。

現行租稅體系中에서 直接稅又는 財產課稅라고할만한 主要한者는 所得稅、臨時利得稅、資本利子稅、營業收益稅、相續稅等인데 此等 諸稅目은 다 增稅를 豫想치 못할것이다。

于先 日本租稅體系中에서 中心稅의 觀을 듯는 所得稅는 第一種所得稅、第二種所得稅、第三種所得稅의 三者가 다 增稅될 可能性이 잇는者이다。第一種法人所得稅와 淸算所得의 課稅는 다 引上될 餘地가 잇는것이며 또 公債、社債、銀行預金利子、貸付金利子、信託의 利益等에 課하는 第二種所得稅도 增稅될 可能性이 잇는者며 第三種所得稅는 累進率이 高度化하야 高度所得者의 負擔이 增加해지는 同時에 從來의 日本內地免稅點 一千二百圓이 千圓 又는 八百圓으로 低下되여 低度所得者도 亦是 所得稅를 負擔케될것이다。

다음 相續稅로 말하면 偶然한 好運으로 因한 眞正한 不勞所得이니까 社會正義上으로 보아도 大幅의 增率과 累進率의 高度化는 免치 못할것이다。

財產課稅中에서 新設될 可能性이 濃厚한者는 財產稅다。財產稅는 一定額以上의 財產所有者에게 對하야 定率稅를 課하고 政府의 財政的調節力에 依하야 適當한 緩急을 與하야 目下의 非常時局에 貢獻케 하려는者인데 이는 今番增稅에 잇서서는 實現될 可能性이 濃厚한者이다。

다음 間接稅 即 大衆課稅中에서 稅率引上의 目標가 되여잇는者는 酒稅、麥酒稅、淸凉飮料稅、織物消費稅、砂糖消費稅等인데 此等 諸稅目의 納稅者는 直接、國民大衆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結局은 消費大衆에게 轉嫁되는것이기때문에 此等에 對한 稅率引上에는 相當한 反對가 잇다。그러나 現內閣은 租稅收入의 增加를 圖하는 意味로 結局 引上을 斷行할는지도 모른다는 情勢에 잇다。

다음、新稅候補者로 指目되는 諸稅目으로

一、燐寸稅
二、가소린稅
三、化粧品稅
四、賣上稅

等等이 잇고、前日、廢止되엿든것으로서 다시 復活論이 잇는 諸稅目으로

一、通行稅
二、賣藥印紙稅
三、醬油稅
四、綿織物消費稅

等等이 잇다。

또한 그他一部에서는 財產課稅主義를 高調하는意味로

一、獨占資本稅
二、土地增價稅

等等을 主張하는 者도 잇다。

다음 增稅以外의 方面에 잇서서의 國庫收入增加、又는 國庫支出減少策으로 指目되는 者는

一、鐵道益金의 一般會計繰入增加
二、植民地補充金의 廢止
三、日本銀行政府納付金의 增加
四、郵便料金의 引上
五、煙草價引上
六、政府專賣事業의 擴張、例하면 酒、麥酒、砂糖
七、國營事業의 擴張、例하면 保險業、電力 그他
八、國債의 低利借換

等等 諸項目이다。

그러니까 첫재 增稅及 新稅에 依하야 國庫收入의 增加를 圖하고、그래도 不足한 分은 專賣事業의 擴張에 依해서 補足하는同時에 他方、支出에 잇서서는 植民地補充金廢止의 例에서 보는바와가티 從來、支出해 오든것을 廢止하며、또公債低利借換의 例에서 보는바와가티 支出의 縮減을 쓰는데 依하야 一般會計의 支出減少를 圖하자는것이다。(未完)

人事·集會

◇相川勝六氏(總督府外事課長)八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着列車로着任

八面鋒

◇獨自로征服한에디오피아問題를 獨自的으로 解決하겟스니 聯盟은 잠자코잇스라고。

◇무솔리니君 乘勝長驅의勢로地中海制覇까지 꿈울꾼다하니其勢也大也로다。

◇英外相、戰爭이무서워서 「스에즈」運河의 封鎖는안햇다고。

◇祭祀뒤의 屛風을 구태여 떼들고다닐 喜劇俳優는아니라는 말이지

◇「軍部에追從하야 經費를支出하면 國民의不安이 醸成된다」는 政友의濱田君의 演說。

◇지금、日比谷公園에도 이만한言論自由가 잇다는냄새를 풍겨보자하는것인가。

現代婦人洋裝
ミヤコ
京城鍾路一丁目 電光一六五五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 利益만코本業副業으로 男女小兒라도 自宅에서 休할수잇는職業、年中無休 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急勞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榮本舖

5月傑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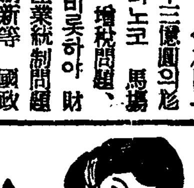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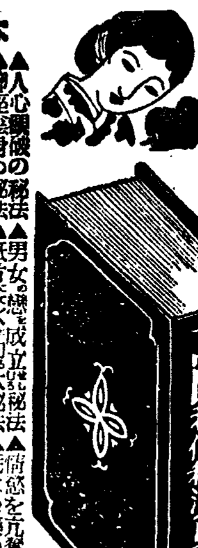
新傾向流行歌
흐르는 身勢
님 그리는 새
金蓮月
오케-레코-드

漁具
極上麻絲投網 五分目 一番金八圓也 四分目 二番金十圓也
捕鳥網 三間金三圓也
京城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漁具商 秋岡商會
電話本(2)四三九〇 振替京城二一一壹五六
定價表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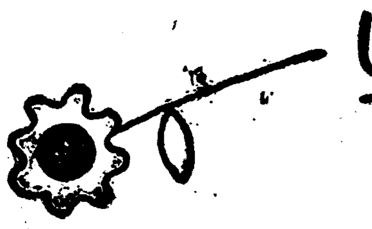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鮮人會員에限함) 二冊無料進呈(但入會者는巡査試驗問題集等)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電本(2)三〇二〇番 (規則書即送)

カレンダー商界에元祖覇王인
大阪杉本商店鮮滿進出
營業種目 カレンダー、團扇、扇子等卸賣
滿鮮連鎖店大募集 (規定書進呈)
本店

一種五圓十圓で敎へた秘法盡く公開!!
◎今まで他に類のない實本!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本川町 現代出版社 振替大阪五六〇二番

花香보다조흔

ラランポマード
라란포마도

永樂町 中央館
春色五人女 全十卷
鈴木澄子、森靜子、白石明子、毛利峰子、泉清子、大競演
原作脚色八尋不二 監督石田民三 撮影川崎常次郎
オール·サウンド版 新興京都撮影所超特作
此の特別メンバーに成って、新作された、不朽の名作を是非!!
己が罪 全十三卷
高田金、山路ふみ子主演 新派劇壇の雄藤村秀夫特別出演 菅井一郎、三桝豊、浦邊粂子、金澤コンチャン、金澤美津子、大競演
原作菊地幽芳 脚色監督西鐵平 パート·トーキー
高田プロ大合同製作 新興東京大泉撮影所超特作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當る六日特別大公開 春!櫻花滿開、絕好の觀賞シーズンに放つ此の名作!此の監督!此の名優!最高を誇る悲劇秀粹篇「己が罪」遂に來る!!

洋劇專門 浪花館
次週——雪之國戀化
▲あの道この道 本郷秀雄、水島光代 松竹蒲田純情映畫
▲有りがたうさん 上原謙、桑野通子、築地まゆみ、二葉かほる 松竹文藝トーキー
▲支那海 クラーク·ゲーブル ジーン·ハーロー ウオーレス·ベアリー 共演 メトロゴールドウイン超特作
五月六日ヨリ五月十一日マデ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鐘路五丁目 電光二五五番 第一劇場
戀愛飛行一萬里 空中大活劇
西部活劇 西部의法
五月七日夜間부터三日間大公開

共軍과村民이呼應 朝鮮人十名虐殺

十二名拉去、金品掠奪

北滿寧安縣서發生한殘虐事件

【哈爾濱支局發電】 모고찌어 한이비에 도착하든 지난달 이십칠일에 녕안현 경박호이자가(寧安縣鏡泊湖二子街) 동쪽 부라마강(具江)에는 게흉불명한 공산군이덕치드려서 「조선사람을죽이려」 고소리를지르면서 열명을 학살한뒤금품기타 여러가지를떨치는대로 략탈하고 남녀열두명을 붓잡아가지고 도망하엿다 자세한사정은관계당국에서 조사중이며 그일당가운데는부락민수명이 석겨잇섯슴이 판명되엿슴으로 경찰당국에서 체포취조중이다 사건발생한 그지방 근처에는 종래에만주인이공산당 홍은토병(土兵)들과 비밀히련락하야 조선농민을 종종학살하는일이잇섯스므로 당국에서는 철저한대책을강구하는중이라한다

豫審繫屬一年만에 穩城勞農事件終結

멤버十五名中五名은妙齡女

淸津法院公判에廻附

【淸津】 모령녀자단원을 중요한 멤버로 전조선적화를 목적하고 맹활동하다가 함북종성서(鍾城署)에게포된 온성군(穩城郡)을 중심으로한 적색사건은 작년검거이래 청진지방법원예심계에 이래취조를 받든바 근근 예심이종결되여 공판에 회부되리라는바 기소된 단원십오명중오명은 십칠세로십팔세의 묘령녀자단원이며 기소된사람은 다음과갓다

起訴者氏名

穩城郡美浦面豊仁洞二七六 農 晁琡 仝一 事 全長元(二〇)
穩城郡美浦面豊橋洞四五〇 農 構雨若雨事
穩城郡美浦面城洞一三〇 農 春玉 振甲 事 金成男(二四)
穩城郡豊谷面雲岩洞二二三 農 金赫 命石 事 金相洛(二四)
穩城郡美浦面長德洞三三一 農 金相萬(二三)
穩城郡美浦面長德洞一九ノ四 農 吳在奎(二二)
穩城郡美浦面豊仁洞三二一 農 元鉉 事 全相孫(二二)
穩城郡美浦面長德洞六〇 無職 蕙順 鳳女 事 金二女(二一)
無職 順姬 事 崔玉蓮(二七)
教員 金男 金暉 事 金相洛(二四)
穩城郡美浦面豊仁洞五〇四 農 相彬 事 金三彬(二三)
穩城郡美浦面長德洞一一五 農 元孫 事 金元鳳(二二)
農 崔致順(二一)
穩城郡美浦面長德洞六〇 無職 停宇 事 崔慶金女(二一)
穩城郡美浦面豊仁洞一一九 無職 貞姬 事 蔡丙月(二〇)

土木事業일으켜 兩道冷害民救濟

國費、道費를合하야廿三萬二千九百三圓

蒼海一粟가튼救濟費

수삼년래로 냉해(冷害)가 계속되여 전도민의 다대수가 극히 곤궁한상태에 빠지어잇는 함경남도에대한 냉해이재민구제는전번에 위선 종묘대(種籾代)로도비(道費) 절반에 국비절반을합하야 십삼만이천구백여원을 지출하고 다시 구제사업을 계속하기로하고 이번특별의회에 제출하는 추가예산으로 십삼만륙천사백여원을 청구하엿다 그리하야 도비 사만륙천오백팔십일원을 합한 이십삼만이천구백삼원으로 신규의 토목사업을 일으키어 총공사비의륙할을로임(勞賃)으로 산포키로되엿는데 토목사업은 전부가 새로만드는 도로이고 또 로임은 한사람압 하로오십전 예산으로되여잇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서구제가원만하다할수 업(업)다 당국에서도 알고잇스나위선 이러케라도해서 구제를 하지안흘수업서서 계획을 세우게되엇다 이라한다 공사는 특별의회가 끗나는대로 착수할터이나 늣저도 칠월부터는 착수될모양이다

봄거리 失家兒

서울거리 봄바람은 시골학생 예방 주서머리조려나간어린아이 장충원 벌욋칫저오는 시골갓너등 집을찻지못하고 거리에헤매이는사람들 장안의거리는 봄다운 흥성을보이고잇다 종로경찰서(本町署)에서 전수한것

▲최식(崔植)(三) ▲삼가정 ▲홍순(洪順植)(二) ▲하왕십리(下往十里) ... ▲전봉운선(全北雲仙) 보교생리명제(李明濟)(一三)

美展作品搬入 七日로終了

제십오회조선미술전람회작품반입(搬入)은 칠일에 마치엇는데 금번의작품은 제일부일백사십사점으로 작년보다사십팔점이감소하엿고 제이부는 팔백륙십칠점으로작년보다오십점이감소하엿다 다만제삼부만은 일백오십칠점으로전년의 일백십일점에비하야 사십륙점이 증가하엿다 그리하야 총점수는 일천일백륙십칠점으로 전년의 일천일백구십점에비하야 이십삼점이 감소하엿다

아는독기에 발등찍힌다

시내 종로(鍾路)오정목 이십오번지 김영진목공소(金永鎭木工所)에서는 지난 사월이십일밤 열한시쯤되여 끔그리다 목수연장 열세개―시가 십여원어치가 업서저 주인이 대단히 이상히역이고 내탐을 해오던결과 드듸여 작일에와서 그집에와서 일하고 잇든 시내무학정(舞鶴町)이십칠번지에 사는 장중영(張重榮)(二六)의 소행임이 탈로되여 장은 당방동대문에―가는 사람이 발견하고 곳한강교파출소에 통지하야 왓슴으로 그파출소에서는 곳본인에 ... 전고주소를 차저보앗스나 종적이라는 사람은 업서 자못 처치에 곤란중인데 어떤

奔騰一路의白米

日本內地糧米不足이原因

細民生活에大痛棒

작년가을이래 비교적 조흔값세잇든 쌀시세가 봄에들어서며 역시 빳빳하여 현미시장의 시세가 올르더니 륙일부터 경성시내 각공영시장의 정백미는 매키로에 오리식올랏다 이가격은 일본내지가 흉년이들어서 전반적으로 식량의 부족을 늣기게되며 최근에 조선쌀이 일본내지로 만히건너가게되여 조선에서도 자연쌀시장이 긴장하여지게된 것이다 미형회의 발표에의하면 일본내지의 시세는 한섬시실삼원이십전의 최고공정가(最高公定價)를 돌파하고잇서 대판 정긔(定期)시장에서는 사십원선을 주창하는것도 잇게되여 그여세가 조선에도 심각하게 밋치게된것이다 팔일의시세를보면 ▲일등백미백키로에 이십이원으로 전일에비하여 오십전이올랏고 ▲한백미(韓白米)는 ... 으로 전일에 비하여 ... 올랏고 한가마니에는 십사원사십전이고 ▲한백미 소매가격은 상점마다 제각금 다소간 다른데 품질과 상점에따러 한섬에 이십팔원사십전으로부터 이십구원까지 호가하고잇서 대중할수업스나 대체에 잇서서 섬에 약삼십전이나 올랏다 이번시세는 작년이때에 비하면 ▲일등백미는 백키로에 일원오전이나 놉고 ▲한백미는 도매시세에 한섬에 일원륙십전이나 놉하서 ... 관계로 소비대중에게는 ... 곤란한터로 금후의 쌀시세는 어떠케될는지 주목되고잇다

船遊하든將校團 府尹을毆打暴行

交通妨害코警官에게도行悖

平壤府會園遊會서

【平壤支局電話】 평양부회(平壤府會)의원들의 벗꼿노리는 지난일헤날 오후다섯시부터 대동강(大同江)릉라도(綾羅島)에서열리엿섯는데 일곱시쯤되여 그강에 배를 띄여노코 질탕하게놀고잇든 보병(步兵)재칠십칠련대제이대대(第二大隊)장 송정(松井)소좌외 대여섯사람의 일본옷입은군인일행이 그섬에 상륙해가지고 마츰 꼿노리하고잇든 부회의원들과 서로 술잔을 주고밧고 하고 잇든중 장교편의 한사람이 「당신은 부윤(府尹)이냐?」고 고교부윤에게 물으므로 씨는 「그러타고」 대답하자 부윤에게 대해서 갑작이 뺨을따리므로 크게 소동되엿기때문에 그 벗꼿노리는 마츰내 중지되여 서로 헤지고 말엇다。한편 으로 장교들은 인도교 파출소 압헤이르러가지고 지나가는사람들에게 교통을 방해햇기때문에 경관두명이 말리려하자 「군인이므로 경관의취체는 밧지안는다」 하고 경관에게 폭행을 하고저하므로 고교(高橋)도 농무과장 이 말리려하자 이번엔 다시 씨에게 폭행을하여 혼도시켯기때문에 평양부회에서는 부회부의원들소집해가지고 전부회의원일동으로 아츰열시부터 부청회의실에서 간담회를열고 이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중이다

結局上告審에

"前司法主任"法爭根氣

五日拘留를또不服

경찰범처벌규측위반(警察犯處罰規則違反)으로 경찰서에서 오일간 구류의 직결처분을받든후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요구하야 경성지방법원과 복심법원에서모다 역시구류오일간 언도를 바

高走犯途中逮捕

고양군 뚝도면 동뚝도리(高陽郡纛島面東纛島里) 장유근제재소(張允根製材所)직공 진병섭(陳炳燮)(二三)은 지난 칠일 오후네시경에 주인의 돈 이십원과 자전거한대를 훔처가지고 평양(平壤)방면으로 도주하려든중 일산

녀자가 참으로 무엇을 비관하고한숨을쉬고 푸른물에 몸을던저 죽엇는지 또는 죽은것처럼보히고 어데로 도망을 한것인지알수업서 방금그의 신원을 조사하기에 진력중이라한다

和泉町에窃盜

팔일 오전다섯시경에 시내화천정(和泉町) 부근을 자전거에숫(木炭)두섬을싣고 배회하는 수

全州師範學校開校

【全州】 관립전주사범학교는 금춘 강습과 이백오십명과 본과 백명을 모집한후 아즉것 개교를보지못하엿든바 오는십일에 개교할예정이라고한다

大學專門

教育改善策協議

조선내의 대학과 전문학교의교육개선책을 협의하고저 총독부에서는 십구일 오전팔시반부터 총독부제일 회의실에서 열게되엿다한다 이협의회 참석할사람은 경성제대총장 이하각부장과 관공립 전문학교교장 동이십일명이라하며 협의할의제는 대학과 전문학교의 교육에잇서일층 더국체관념을 명징(明徵)키하며 도총에자를 가장국가사회의 실정에적용한 적극적활동을 식힘에적당한 구체적개선책이라한다

冷水먹고술취한체

안해의不正을摘發

【安州】 ... 원에 들어온 연극가튼 리혼소송사건 ... 번지 원고 최재옥(崔在玉)(二二) 은 자긔처 피고 김성조(金聖朝)(二〇)와 살수업다는것으로 소장내용은 전긔 두명이 소화이년봄일시일 결혼동거하야 살아오다 ... 에게 제포되여 방금 서대문서에 류치중이라고 한다。

人身典執詐欺術

거짓아비 데리고 다니면서 美貌看板으로 犯行한 厥女

路上에서 被害者맛나 警察에

... 북아현정(北阿峴町)이십 륙번지에사는 전중원모경찰서사 범주임 림충희(林忠熙)(二三)는 아모리 하여도 이판결에 복죄할수업다하야 팔일 고등법원에 상고하엿다 ... 상고공판은 오는본입니다 이십구일 희주(喜田)재판장주심산택(山澤)검사관여밋헤 열리기로되엿는데 그는법서나흠동안 이나 구류를당하는 엇든 하로 동안만더 구류를하면 될러인데 이를불복하고 상고까지 하여온 리로 이러쾌는 그다지 만치안 흔만큼 상고심의 판결여하는자 못일반의 주목을끌고잇다

거줏아버지를 데리고 단이면서 자긔몸을 판다고하야 각처에서 수만흔돈을 사긔해먹고 도주해 잇던 젊은미모의 대담한녀자사 긔범이 칠일밤 시내종로서에체 포되엿는 그는 경긔도부천(富川)출생이라는 일정한 주소가업는 지봉순(池鳳順)(二三)이라는녀자로서 약두달전부터 김상벽(金尚壁)(四七)이라는 엉터리 아버지를 데리고단이면서 시내각인사소개소에가서 자긔몸을 판다고 하야 그몸갑을 바든다음 교묘하게 속여서 도망하여버리던것으로 지난륙일에도 시내관철정(貫鐵町)리응극(李應極)(四七)의인사소개소에서 전긔와가튼 수단으로 팔십원을 사긔해 갓스며 서대문정(西大門町)일정목 김성복(金成福)교북정(橋北町)황문수(黃文秀)의 인사소개소에서 각각 일백원식을 사긔해먹은것을 비롯하야 서울과 시골각처에서 삽십여건을 범행하엿는데 동을사긔당하고 분함을 못이기던 피해자중 전긔 리응극이가 범인을 붓들려고 애를태우고 다니다가 칠일밤 시내 광교(廣橋)우혜서 우연히 범인과 마조처서 그대로 딱붓들어다가 경찰에 끌고온것이라한다

西小門町 阿片窟을襲擊

칠일오후일곱시경에 시내 서대문서에서는 산동성(山東省)출생으로 현재서소문정(西小門町)삽십사번지에거주하는 중국인허서성(許瑞盛)(三八)이 아편밀매를한다는 사실을탐지하고 허의집을 습격하야 때마츰뭐들에 감추라든 모루히네스을다섯봉지와 에지니고잇든 아편열한봉지 기타닭멋해 강추엇든 아편흡연식기(阿片煙吸食器)한개등을 압수하는동시에 범인허를 방금동서에 인치하고엄중취조중이라는데 여죄도 상당히 만흘모양이며련루자는 방금 조사중이라고한다

男子의외인팔 女子의바른팔

함께묵고죽은情死體

八日午後漢江渡船場에서發見

팔일오후련시 부내마포정(麻浦町)백번지 한강도선장에서 그곳을지나가든사람이 남자의외인팔과 녀자의 바른팔로 함께묵고 빠저죽은 시체가 떠밀리는것을 발견하고 곳용산경찰서 마포정파출소에서 곳현장에 출동하야 시체를검시한결과 남자는원정을경성송현정(松峴町)구십륙번지에두고 현재인천화정(仁川花町)일정목이십번지의십이호 경인(京仁)「트럭」 우전수 아칠석(安七石)(三二)이고 녀자는 주소씨명모다불명 한터로 회저고리와 회치마에붉은짜긋옷을입엇스며 구두를신엇는데 보힘보힘이 어느모로 나희는 이십오륙세가량이라한다 다 빠저죽은지는 약일개월가량된 모양으로 그파출소에서는본서에 보고하는동시에 경인택시회사에 문의중이라한다

開城에火災

一戶全燒

損害二千餘圓

【開城】 현주소를 부내대화정(府內大和町)에둔 한재옥(韓載玉)은 금춘에 북본정(北本町)사팔

運搬船과漁船衝突

漁夫六名이死傷

警察에선加害船責任者를引致

盈德郡大津港附近海上의慘劇

【盈德】 경북영덕경찰서에서는마루다회조점(丸田回漕店)운반선선장 전중약차랑(田仲若次郎)(二?)외 선부이명을 엄중취조중이라는바 그내용을 탐문한바에의하면 전긔운반선은 지난사일 오전일시사십분경에 영덕군영해면 대진항(盈德郡寧海面大津港)부근 오해리지점에서 대진동에서 출어중인 복면의승조원이 탈중한 정어리(鰮魚)잡는배를 전복시켜 어부중 일명은 즉사하고 그외에 중경상자를 내이사실이 잇다하야 그와가티 취조중이라는 바 피해당한 어선은 어구(漁具)의류기타 손해가 불소하다하며 중상자인도 방금조사중이라고한다

死傷漁夫氏名

▲盈德郡大津洞 金相辰(三?)死亡
▲同 李學先(二?)重傷
▲同 李介東(三?)輕傷
▲同 金相朝(三?)同
▲同 金京祚(二?)同
▲同 權在岩(?)同

良家子弟가 窃盜로轉落

【大田】 재산가의아들이며 모군수의족하라는훌륭한 간판을지고 시내에돌아단이며 십여회나 자전거를 절취한자가잇다―대덕군류천면평라(大德郡柳川面坪里)에 사는윤태원(尹泰元)(二?)은 그의 집재산이 약삼만원가량 잇고그의숙부가 충남 모군군수인집아들로서 대전시내로 돌아단이며 자전거를 십여대―시가약 칠백

勞働者三名死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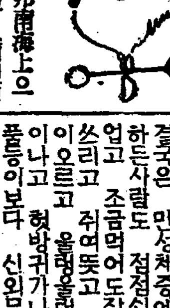
六日長津水電의慘事

다이나마이트爆發로

【咸興】 륙일오후아홉시반 함주군하기천면진흥리사동(咸州郡下岐川面眞興里寺洞) 제이호 추도입구(第二號隧道入口)에서작업중이든 한재의(韓在義)(二?)등 삼명의 로동자는 뜻밧게 「다이나마이트」의불의폭발로 한재의는 즉사하고 그두명은 모다치료일개월을 요할 중상을입엇다한다

원가량―을 절취하야다가 전당포에다 잡혀먹기도하고 아주팔아버린것도 잇다는바 지난사일 대전부 춘일정 룡천자전거점(龍川自轉車店)에 훔친자전거를 가지고온것을 대전서원이 체포하야 방금엄중취조중이라고 한다

天氣予報



概況 高氣壓은本邦南海上으로부터 關西로퍼지고 滿洲西部도 氣壓이놉다 低氣壓은黃河流域南中國과 石垣島附近에 잇서東進中이며 千島方面은 氣壓이낫다 滿洲와 朝鮮北部는 개여잇스나 南朝鮮과日本內地는 흐려잇는편이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개엿다 흐렷다하며 明日도가트며 京畿

今日正午 一七、六
今朝最低 一一、四
昨日最高 二〇、七
同 全道 同一、一

運動競技

올림픽拳鬪選手 李奎煥君 今夜京城驛出發

올림픽拳鬪朝鮮代表選手가 나온 世界의 權威者 李奎煥君(校服)과 ... 은 今夜十時五分 京城驛發列車로 東上 十日夜東京에 到着 十一日부터 六月十日까 지一個月間 東京市芝區 ... 合宿練習을 마치고 同月二十日에 一齊히 歐洲로 出發하게되엿다

國際올림픽陸上 朝鮮豫選大會 九、十兩日間擧行

全朝鮮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十一回國際올림픽大會朝鮮第一次豫選大會는 九、十兩日間(第一日午後三時半、第二日午後一時부터) ...

第十三回全朝鮮 大學專門卓球 十日大東京建物서

京城卓球聯盟에서 ... 第十三回全朝鮮大學專門學校卓球選手權大會는 十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大東京建物에서 開催한다는바 參加團體는 大學、京城帝大、普成、延專、城大、醫專 ... 人員十四名이 參加하야 ...

伯林派遣選手 最後的決定

【東京電話同盟】 日本體育協會에서는 七日午後四時半부터 丸之內中央亭에서 理事會를 열고 今夜伯林에 派遣할 選手의 決定을 하고 今夏伯林에서 開催하는 第十一回國際올림픽大會派遣代表의 人員 ...

職業野球리―그 세네타―스軍優勝

去月廿九日부터 甲子園球場에서 열린職業野球리―그戰은 지난五日로서 終了하엿는데 金鯱軍은 東京大東京軍과 세네타―스軍은 ... 十一回延長戰에서 ... 五對四로 ... 優勝하엿다

都市卓球東京代表

全日本都市對抗卓球大會는 來十五、六兩日間大阪에서 擧行될터 ...

◇寫眞은 告別人事次로 八日本社來訪한 李奎煥君(校服)과 朝鮮拳鬪部長 成義慶氏

標石滿載한 帆船衝突沈沒

【仁川】 지난륙일오후 오시경 月尾島부근에서 부천군(富川郡) 영흥면 ... 와 ... 의 배와 충돌 ... 표석을 만재하고 인천항으로 향하든데 ... 침몰하엿다한다

觀光團쪼차왓다가 彷徨하는叔侄

칠일오후 열한시사십분경에 종로삼정목부근에서 갈곳을 일코 헤매고잇는 어린소년과 늙은로인을 시내종로서원이 발견하고 조사해본결과 그는 전북정주군운선면 장선리(全州郡雲仙面長仙里) 운선공립보통학교(雲仙公普校)사변생 박룡래(朴龍來)(一三)와 그의 아저씨되는 박운백(朴雲白)(五?)이라는 로인인데 그들은 칠일새벽에 운선공보 이십칠명의 생도들과함께 수학려행차로 경성에와서 시내를 구경하고 단니다가 팔일아침이 되도록 려관을 차자가지 못하고 단체에 떠러진것인데 경찰에들어오지안허서 종로서에서는 각서에 수배하야 그 단체를 차자 할수업서 경성역에 의뢰하엿는데 식골로떠나든 그인솔자에게 이것을 통지하엿스나 곳차즈러오지도 안아서 로비한푼업는 어린생도와 늙은 로인이 경찰서에 그대로 머무러잇는중이다

八日封切 超百萬弗音樂舞踊豪華版 RKO二大作豪華版 진저로쟈―스 푸레드·아스테아 主演 톱 푸 햇 幸福은眞心에잇나니世上의 處女들이여戀心과돈이업다 고설어마러라 RKO立體內容再生機의驚 嘆할美聲에醉하라 處女여嘆息마라 許雜篇 名作品 개사리、헵반主演 團成社

蔘茸精 高速度血液補給補陰補陽強壯新藥

이약은 사람이생기면서신농씨(神農氏)가 여러백가지풀을스스로맛보고 ... 藥價 五〇錢、一圓五〇錢、二圓五〇錢 ...

淋疾藥界의霸王トリパリン 人生에가장苦痛을주는淋疾을根治하시라 初期에는 治療에念慮하다가慢性이되면 苦痛이 甚하지안음으로 ... 藥價 五二圓

나로― ナロ― 고급만성 위장약 조선에서 가장만혼병이속병이다 ... 藥價 五二圓 ... 二十二日分四圓

영아환 嬰兒丸 貴重한어린이 病에特効한家庭常備良藥!

子女는 生産하는이보다 ... 藥價 四十錢 五十錢 以上藥은日本全國及滿洲全國有名藥店에서販賣함 京城府授恩町三二 總發賣元 朝鮮商會 電話光(3)一七八五·振替京城一〇四八六番

春의豪華化粧!
優秀하고아름다운理由!
一、粒子가
日本婦人살결에 꼭適合하게 잘調製하엿스므로 누구에게던지 잘먹고、잘피어서 溫和한 四月의 땀과 脂肪에 밀리지안코 오래갑니다。
二、色彩가
鮮麗하야 近代的으로洗練되여잇스므로 化粧한것갓지안코 自然의美처럼 아름답고 모던的인 個性美를發揮합니다!
近代味溢る、四色
豪華 肌色・濃肌色・オークル・白色
新裝 粉 各色二五錢・水 各色三〇錢
レート白粉
爛熳한꽃과競艶하는・레―도白粉의化粧美!
東京・平尾賛平商店

길까의나무그늘 무색옷의 피서지

왜우리네는 가로수를심지안햇나

거긔도헌옷이병이다

지금으로부터 삼사백년전 어떤 어른이 적어 노흔것을 보죽 옷빛은 희고 노래소리는 슬퍼 전도가 재미업지 안하라고 하얏습니다. 그 어른의 긔록으로 미루어서 생각컨대 조선서 흰옷을 입은 것도 상당히 오랜역사를 가지고 잇는 모양입니다. 지금 새의정권를 한다고 떠들어서 흰옷이 거의업서 진 이상 다시 흰옷을 처들것도 업스나 우리네의 빗 술판을 가지고 한번 과학적으로 알아 보는 것도 취미가 바이 업는 일이 아니올씨다. 흰옷 경제로 보아서 손이나 리나는 판문제라 여긔서는 오욕위생 어떠한가를 말함에 끄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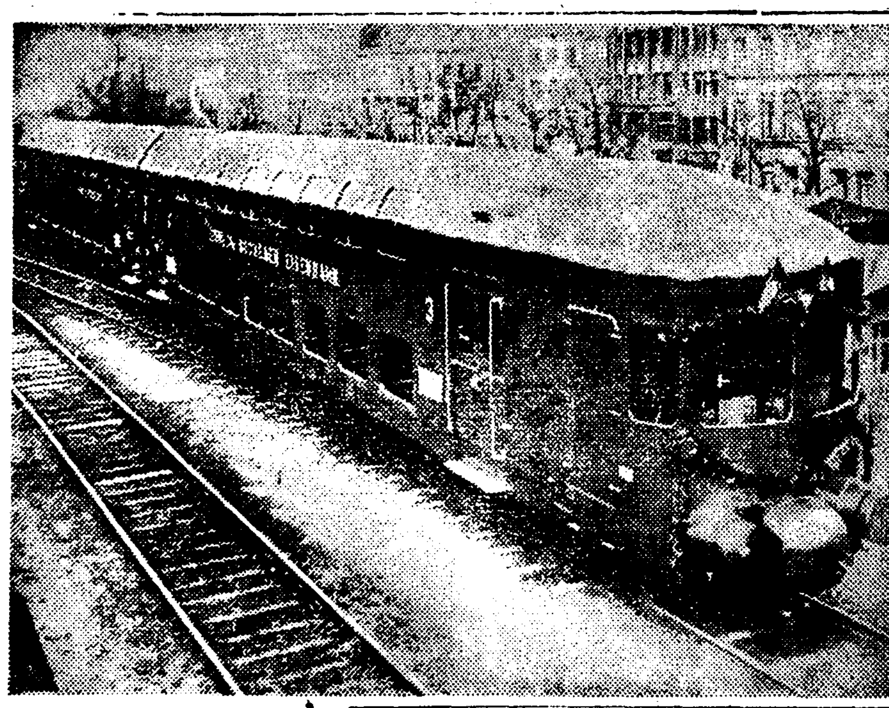
의복이란 몸을 가리는것이 추장 목적일는지 모르지만 은 몸의온도를 지키어 가 는것이 그다음의 큰 목적 입니다. 그런데 의복의 빛 갈이 첫재의 목적과는 아 모 관계가 업는대신으로 둘 재의 목적과는 기픈 관계 를 가지고 잇습니다. 설사 가튼 옷감이라도 그 빛갈 을딸아서 온도(溫度)를흡수 (吸收)하는 힘이 다 각각 다릅니다. 가령 흰빛의 온 도 흡수량을 백이라고 한 다면 진한황색은 일백사십 이요 연한공풍은 일백륙십 오요 기픈피령이는 일백팔 십팔이요 검은비츤 이백팔 쪽 흰 비치가장 잘 온도 를 대항 하는바대로 흰비 치 제일 온도를 방어하야 내지 못합니다. 전긔의 수 자로 보아서 흰빛과검은빛의차 이가 거의 배나 된다는것 을 잘 알수잇습니다.

×

그럼으로 녀름에 흰비치 조코 겨울에는 무색 그중 에도 검은 비치 제일 좃 습니다. 그것은 보통으로를 아는 터로 새삼스러어 설 명할 것도 업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네가 겨울에 흰 옷을 입는 그것이나 서양 사람들이 녀름에도 무색 옷을 만히 입는 것이나 똑 가티 잘못하는일입니다. 만 일 과학적으로 의복의 빛 갈을 택한다면 녀름에는 조 선사람과가티 흰옷을 입 는것이 조코 겨울에는 서 양사람들과가티 무색옷을 입는 것이 좃습니다. 그러 나 빛깔을 딸아서 온도흡 수량이 틀린다는것도 오죽 햇볏아래서만 그럿습니다. 그늘미트로 들어가서는 어 느빛갈이나 죽 흰빛과 검 은빛까지도 다 똑 가터저 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못합니다.

×

그럼에 [illegible] 제라 얏는 한가지의 사정이 잇 습니다. 그것은 곳 우리네 들어 서양사람들처럼 길 [illegible] 나무를 잘 심어 [illegible] 그것을 무엇이라고 우리네는 [illegible] 사람들이 손 처가 업다고 [illegible] 잇습니까? [illegible] 런 리유가 섯다고 하더라도 [illegible] 고 꼭 [illegible] 못넌가 안흡니까? 아마며 [illegible] 들어도 무색옷을 입는 서 [illegible] 가로수를 [illegible] 하겟지 만은 사시서 흰옷을 입 는 조선사람들은 그런 나 무ㅅ그늘을 [illegible] 이라고도 생각합니다. [illegible] 어 잇는데 그것도 [illegible] 소용입니다.



이칭집멸차

지난사월일일부터 독일의『류 벤』과[illegible] 세계최초의 이층집으로된 류선형렬차입니다 이층집이사 식이 살림채의 [illegible] 의 좌석이 되어잇고 한개 [illegible] 시간에 백이십키로를 쾌주하 는 훌륭한 [illegible]입니다

요새부터도지는 발ㅅ새의『무좀』

—거기에대한몃가지약—

차차 녀름이 가까워 오면 발 꼬락사이의 무좀이 다시 생 기기 시작합니다. 무좀이라면 모르시기 쉬지만[illegible]의 조선이름입니다. 그것은 발꼬락사이에만 나는 것이 아 니라 손등에도 납니다. 하여 튼 대단치는 안하도 귀찬흔 병의 하나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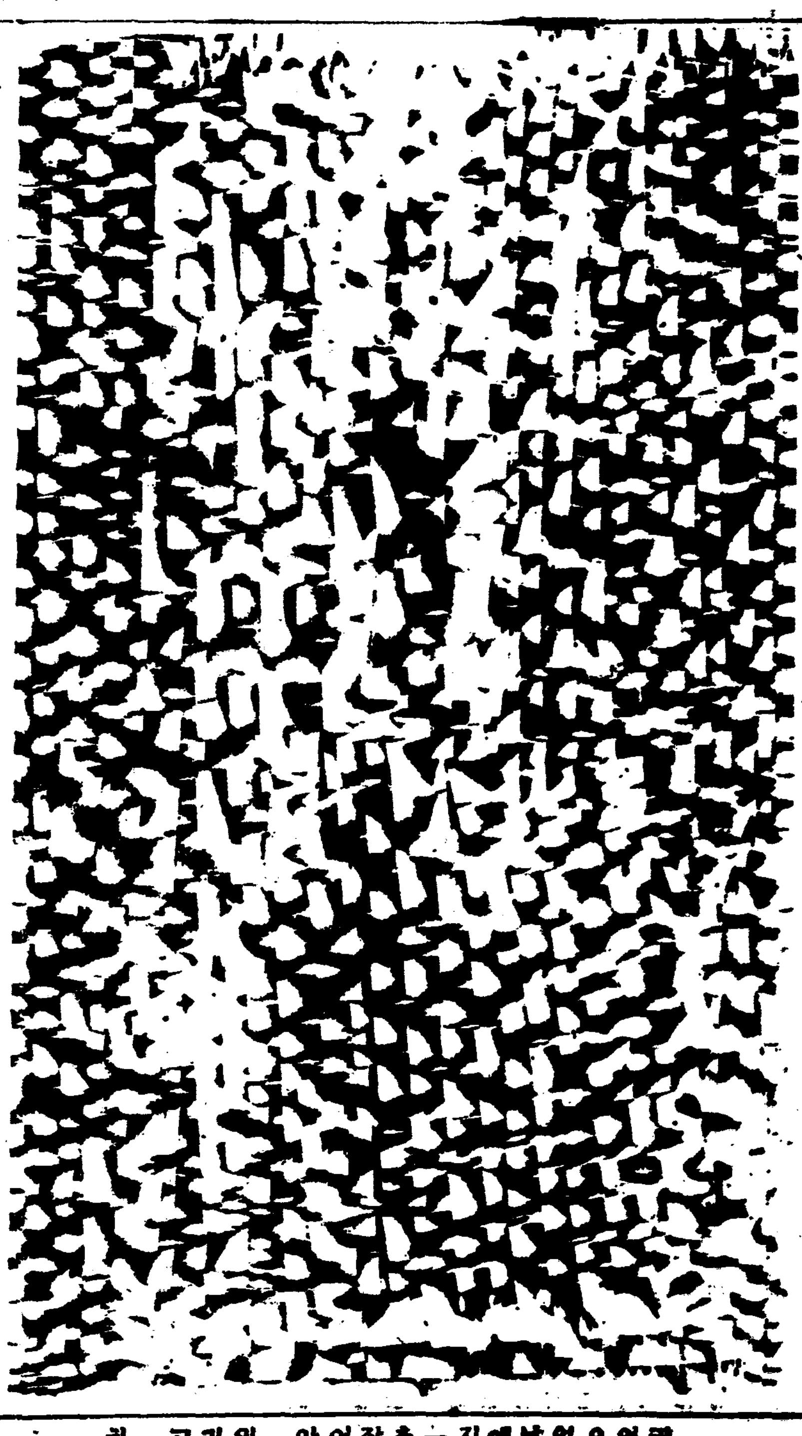
보통을 무좀이라고 말하는데 는 여러가지의 병을 한데서 습니다. 위선 한포(汗疱)라고 하는것도 무좀이라고하고 또 한포양 백선(白癬)이라는것도 무좀이라고합니다 그러나 정 작무좀은 하야케 조그마한이 생기어 몹시가렵다가는 나 중 가죽이 벗어 지는것입니 다 그것이 따로 따로 생기 어 각각 가죽이 벗기어도지 지만은 한데 엉키어 넓게벗 기어 지기도합니다. 한번 걸 리면 좀처럼업서지지안코 치 운때 잠복(潛伏)햇다가 더운 때 도로생깁니다. 발을 자조 안 씻는이는 더욱 심합니다

◇

약으로 신통한 약이 별로업 습니다. 오십배의『살리칠산젼 분(散)』을 뿌리고『뻬스』씨의 피부고약을 바르는것도 해롭 지는 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찌올』一〇그람 (瓦)『아교』一〇그람『그 리세린』六〇그람을 뜨거운물 에 잘 섞거서 마르는 것 을 [illegible] 어 바르기도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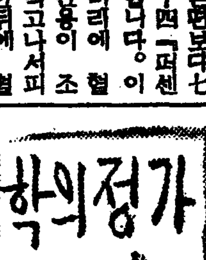
그런데 상약으로 담배ㅅ진 과 인삼(人蔘)을 바르면 효 험이 잇다고 합니다. 인삼은 지쩌어서 [illegible] 해가지고 바릅니다. 또는 조 선조히매드는 떡마룻[illegible] 을 짜서바르면 매우 효과 를 본다합니다.



"식보가큰사람은 머리가둔합니다"

이것을증명한『레아드』박사

미욱한사람 밥만하먹는다는것 은 예전부터잇는말이지마는 최 근『아메리카』의『콜케리트』대학심 리학(心理學)교수『레아-드』박 사는 륙주간이나 걸려서 실험 한결과 역시 두뇌의활동은 식 사의만로 적은데에 좌우된다는 것이 확증되엿다고합니다. 『레아-드』박사는 동대학의상급 생네사람 신입생네사람 합계 여덟사람을 뽑아서 륙주간동안 매일 박사가 손소만든 료리를 적당히 먹이고나서 식후에 그 사람들의 두뇌의 작용을 연구 해본결과『오-트밀』과실, 우유 등으로되어잇는 가벼운식사를한 사람은 고기와 세가지의빵, 과 야채, 사라다,『수프』등의식사스 뒤에 또 과자를먹은사람보다은 괴어려에잇서서 二十五『퍼-센트』 나 낫고 정신통일력에 잇서서 六十九『퍼-센트』가나호며 두뇌의 활동에잇서서 三十五『퍼-센트』 가 빨으다는결과를 어더다고합 니다. 다시『레아-드』박사는 한 생들을 두편으로 갈너서 한편 은 버리가신체의 다른부분보다 낫게하고 다른한편은 보통으 로눕혀노코 실험해본결과 머리를 낫게하고 누은편의 두뇌의 활동 하는것이 보통으로 누은편보다七 『퍼센트』나 빠르고 十四『퍼센 트』나정확하다라고 합니다. 이 것은 왜그러냐하면 머리에 혈 액이 만흔사록 두뇌작용이 조 흔것인데 흔히 밥을먹고나서피 곤한것은 식물을 취한뒤에 혈 액이 소화작용을 잘식히기위해 서 두뇌로부터 위(胃)로 옮마 가는까닭이랍니다.



학의정가

관절강직(關節强直)

問 저는이십륙세된 여자이온데 [illegible] 다。오래동안 고요히 그리고한 번러 기운을내일라고 장울자는 것이다。』하고 말하엿습니다。 이말을드른 민들레는 몹시 놀 나고여려가되어서 『그때는 어떠케되어버립니가?』 하고엽심히 무럿습니다。

答 관절염 더욱이 림독성관 절염후에 발생한강직은 대단오 래갑니다 관절염이 잇슬때부터 미리 강직이 발생하지아니하도 록『켄트겐』치료맛사-지혈크 치료등으로 예방하여야 속히낫 는것인데 일단 발생한것이면더 욱힘이듬니다. 마취하야 긔계적으로 움직이고 또는 수술등을하야보는수박게업 스니 다시전문병원에 입원치료 하십시요

(大學病院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成鎭)

라디오

八日(金曜)

◇午後六時三〇分 講法指導(敎育 레코-드併用)第二回解說 延專敎授 鄭寅燮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趣味講座 李允宰
◇同八時 農村講座(二) 第二高普 金維玉(?)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 興夫歌 鼓手 韓成俊(?) [illegible]
◇同九時(名)絃樂 一、序曲調 旋…舍叫作曲 二、日本의祭… 모-루作曲 (가)導入 (나)祭 (다)日本夜曲 (라)終曲 名古屋交響樂團 指揮 早川彌左衛門
◇同九時三〇分 平壤心歌 一、 [illegible] 二、 [illegible] 四、 [illegible] 五、 [illegible] 三

방아타령 六、노래가락 七、창부타령 細笛 高載德 申海中月 伽倻琴 崔壽成

第一放送

◇午後六時(大) 講演 石橋 信男 木村 重成
◇同六時二五分 (東) 基礎英語 講座(十二)
◇同七時三〇分 (仙) 科學講話 超音波의이야기 東北帝大敎授工學博士 拔山 平一 實谷 榮
◇同八時(東) 能樂「水遊祇」 寶生會能樂堂에서中繼
◇八時五〇分(東) 語陳 三味線 菊池 佐藤 [illegible]
◇同九時(名) 管絃樂 一、序曲 謝肉祭 쏫머作曲 二、日本의祭 모-루作曲 名古屋交響樂團 指揮 早川彌左衛門

九日(土曜)

◇午後〇時五分 小春香歌外 一、小春香歌 二、平壤歌 三、船遊歌 四、제비가 [illegible] 李彩蓮(?)
◇同一時 野球試合實況 『殖銀對鐵道』『遞信對府廳』 —京城그라운드에서—
◇同四時二〇分 關西大角力實況 —京城旭町一丁目角力場에서—
◇同六時三〇分 講法指導(敎育 레코-드併用)(第三回) 解說 延專敎授 鄭寅燮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時事解說
◇同八時 農村講座(二)「五月의 治蟲」第二高普 金維玉
◇同八時三〇分 小女歌劇『마음의등불』全景【配役】네모리노 … [illegible]
◇同九時一〇分 大衆演奏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鼓手 韓成俊 [illegible]

◇同九時三〇分 우수운이야기 一、九龍淵川江 二、서울雜文 오동동 [illegible]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基礎佛語講座(十二) 丸山順太郞
◇同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料理用으로서의野菜와果實(一)
◇午後〇時五分 라듸오·레뷔 [illegible]
◇同一時 野球試合實況 京城實業聯盟리-그戰 —京城그라운드에서—
◇同二時(東) 婦人時間(但野球試合中止의境遇)
◇同二時二〇分(東) 어제어제座談會
◇同六時(東) 女學生五十年 [illegible]
◇同七時三〇分(東) 謠曲 [illegible] 歌舞伎座에서中繼 —大藏寺·詞— [illegible]

十日(日曜)

竹默阿彌作 [illegible]
◇同八時三〇分(東) 自作朗讀
◇午後一時 野球試合實況 —京城그라운드에서— "府廳對遞信"
◇同四時二〇分 關西大角力實況 —京城旭町一丁目角力場—
◇同六時三〇分 하-모니카合奏 알파하-모니카 [illegible]
◇六時五五分 心田開發 [illegible]
◇同八時 伽倻琴併唱 一、短歌 [illegible]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그리운故鄕 二、[illegible] 四、[illegible] 五、[illegible] 六、[illegible]
◇同九時 歌曲 一、[illegible] 作 [illegible]

◇同一〇時 朝鮮交換放送 —京城으로부터「南道歌謠」— 一、 [illegible]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伽倻琴 大笒 杖鼓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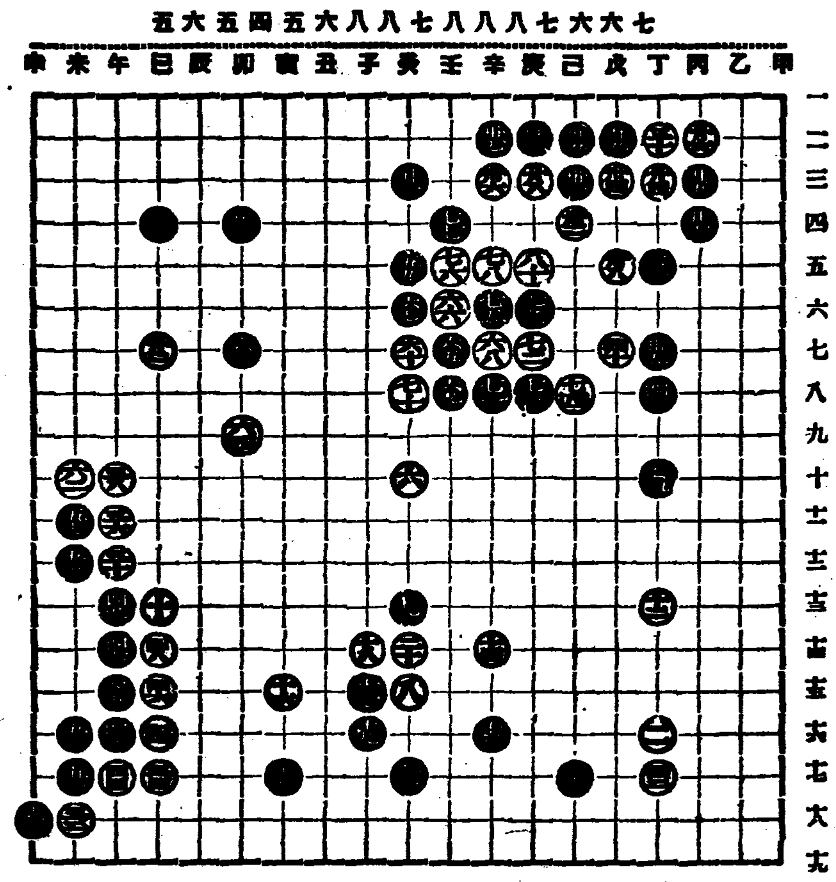
◇午前九時 野球試合實況(釜山) 釜山鐵道對太田鐵道 —釜山野球場에서—
◇同九時三〇分(東) 新綠의東京(實況) —上野動物園에서中繼—
◇同一〇時四〇分(京) 講演 日本의瀾沼와그生物 理學博士 上野 益三
◇同一一時一〇分 講演 [illegible]
◇午後〇時二〇分(東) 野球試合實況 東京大學野球聯盟리-그戰 —明治神宮外苑野球場에서中繼—
◇同〇時五〇分(東) 滿洲旅行案內 大連、奉天、新京、哈爾濱
◇同一時二〇分(東) 라듸오·愛

◇同一〇時 [illegible]
◇同一時五分(東) 新人洋樂 演奏
◇同二時三〇分 [illegible]
◇同六時(大) 이야기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東) [illegible] 一、新社의今昔 二、春山의노래 三、[illegible]
◇同八時(大) 漫才 [illegible]
◇同八時二五分(東) 長唄 [illegible]
◇同八時五〇分(東) 浪花節 [illegible]

★曆★

五月九日(土)

辛卯·木·女·閉
陰三月小壬辰大(十九日)



圍碁對局譜 =5=

☆本社主催☆

白 丁 奎 春
黑先 任 佑 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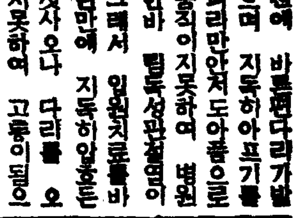
〇 七十一 王의 七
● 七十二 戊의 六
〇 七十三 王의 六
● 七十四 癸의 七
〇 七十五 辛의 八
● 七十六 王의 八
〇 七十七 癸의 八
● 七十八 辛의 七
〇 七十九 庚의 八
● 八十 己의 八
〇 八十一 辛의 六
● 八十二 王의 五
〇 八十三 王의 四
● 八十四 辛의 五
〇 八十五 庚의 六
● 八十六 庚의 五

黎極文氏評日

白이 [illegible] 黑이 [illegible] 하야 中央[illegible] 하고 白은 [illegible] 의入로 起立하니 白은 [illegible] 하고 白은 [illegible] 方在虎口하니 危[illegible]

短篇小說 灰色街【二】

李石薰 作 申哲秀 畵



『자네 한오원 좀돌려주겟나 ?』 『오원?』 『응—여관에서 식사거절을당 한지가 오랫서 비러먹을놈들 볼까지 안때준단말야』 어느듯성생으로 도라간 최군 의양미간에 간얇픈감상(感傷)의 비치 떠돌고잇슴을 밧보지안호 면서 극작가 성해군의이야기가

달밤갑 십팔원을 치러나아가기 도 그로서는 대단히 어려웟섯 다 두달까지는 이리핑게 저리 핑게해가며 약간금으로 어찌어 찌 넘겨갓지만 섣달책잡어드니 까 친절하든 주인이 인정업는 고리대금업자처럼 밤낫볶녹이 섬 화갓고 그천대란 성해가일죽이 당해보지못한 모욕적인것 이엇

문득 기억에소생함을 깨달엇다. 성해는 지금은 도엇는 안해 를어떠 떡자를고첫느니, 어쨋느 니 부려워하는듯 비정거리는듯 하는동안이 떠들지만 한때는 방 울줍다싶히 꺼지살림인 서울생 활이 매우곤궁하엿섯다。최군과 가리 됫풀목에잇는 그리깨끗지 못한 조고만려관에 동무한사람 과 묵이서 주인을하고잇섯든때 사오원만하해도 원고료를주는잡 지는 별양업섯든데다가 처음으 로 물단에 명함을톰혓슬까 말 까한 성해에게서 그리만흔 원

다. 지금 최군이당하는꼴처럼 석사 를거절당하고 볼까지 안겻최주 어서 장판구들이 어름가티 찻 다。때마츰 이른봄이어서 겨울 갓지는 안치만 그래도 매칠식을 을 집히지안코나까 견듸기가어 러웟다。밤갑에 이부자리까지때 우고 성해는 동무와 서로몸을 의지하야 될수잇는대로 밤비다 에맛은 육체의면적을 좁게하도 록 애를서가며 쭈그리고안저서 눈을부치기도하엿다。원낙친한벗 도 만치못한테다가 남에게 ...

비참한허명인가를 끔끔히 생각 케하엿다。그러나 한편나는 이 것은 제법원고료버리를 잘하는 최군의탓도 업지안타고 생각하 면서 최군에게물엇다。 『자네 엄마나 버나 한달에』 『일본서 오는것까지 륙십원가 량……』 『그럼 밥갑은 되지안나』 『그래도 자네처럼 직업을가지 고 월급타는 그런수입과는 달 르지 충충드러오니까……그러 구혼자지내자나 작히 쓸쓸해 야지』 두사람은 기치안허서 의미잇 게 픽 쓴웃음을 웃엇다。 최군은 나이삼십이 넘도록아 직도 미혼자로 그의말대로하면 이 살림으로는 인생의 적막을 절실히 느끼만 한때입에 큰립 업섯다。어쩐지가 추운날 밤 의방에서 눗도록 이야기를 하 다가 도라올때『고다쓰』불을 이 불속에너코 혼처 냉냉이식어가 는 찬방에 꾸부리고 눕는꼴을 보니 미상불 쓸쓸한딴것이 아닌 것은 아니엇다。그런생활을 하 로이틀도 아니오 오래하노라면 자연 감정이 삭막(索寞)해질것 이엇다。따라서 내가보매 최군 이 밥갑도록『바-』로다방으로 술과계집을 구하야 헤매고잇는 듯한것도 그리그릇된일이라 할 수업술것가텃고 그리하야 여관 밥갑도 밀리게 되는모양이엇다。 동정하는마음이 우정을 떠욱 붓도두엇다。

그러나 월급때가 지날지오랜 이때 오원이란 그리적지안흔돈 이 잇슬리업섯다。최군은 자기 가 보기에는 내가 조금원할지 리에잇고 원고료수입도 상당히 잇슬줄하야 어떠케 될듯십어 나 떠리『부르죠아』라고 꺼지한적도 잇섯지만 나는내사정에따러 최 군이나 별양다름것이업시 어려 운것을 내자신외에야 누가 속 속드리 알어줄까。나는 생각하 든끄테 내가 어려운 사정보다 최군의 지금형편이 더욱절실하 며 딱해보엿스므로 『그럼내외투 꺼러주지』 그리고는 웃옷이러섯다。

구한 배를 보아기도 싶어스므 로그들은 어렵서 흔히 일어나 지나지안흐면 안될이다。따라서 그이상의 모욕에 못이게 그들 은 여관들이와 폭이다는 서울을 거리를 헤매기시작하엿다。종로 로 본정으로 그라운드로 진고개 으로 주변을 [illegible] 이밤도록 서울유함을 허메인것 이엇다。

그래도 비가내리고 날산에 몰려 가아저 [illegible] 허메다가 원 망스럽 [illegible] 시간을보 낸다。밤에 [illegible] 거라 로돈내려와 마지막으로 남은 돈 삼십전을 가지고 [illegible] 으로 주변을 [illegible] 하고 밤 이밝도록 서울유함을 허메인것 이엇다。

『……그러면서도 서울을 떠날 생각은 안햇죠 시골가면 그이 상터 정신적으로 비참한생활이 기다릴테이니까요 그래도 인제 라는 서울이 제일이야요……그 후 어떠케됏느냐구요 친구들후 연히맛나 보조를밧다가 가려고 생하든 동무는 시골집에서 여 비가와서 시골로가고 나는 그 저 요모양이구요 하하……그동 무를 서울정거장에서 작별할때 처럼 섭섭게울어보기는 평생처이 엇소 왜그러케 섭섭하고 설든 지 남은 따뜻한 보금자리로가 는데 나만혼 알흐로 언제까지나 서울서 이런고생을 해야하노하 는 생각으로 그러케 섭섭웟엇 나봐요』

성해는 이러면서 그때생각을 하고 두눈에 눈물의핑도는것이 엇다。나도 가난은 각오로 문 학의길을 밟고잇섯지만 성해의 일이 푹 내일가러서 나도가심적 으로덤을 깨달엇든것이다。

지금 최군이 또 그런모욕을 당하고잇는것이다。것흐로는 별 로 근심이업는것처럼 번적주 려하게 차리고 행동하고 대기 지만 이면에서는 이런쓸아림을 당하고잇는것을보니 작가니、평 론가니、문사니하는 회려한(?)이 롭이 최군에게잇서서는 얼마나

童話 봄과少女 (一)

崔秉和

『하라버지! 저웅 꽃술이 허 벅곤한소나무에가주는것이 무 엇이나 그른데 그게 무슨할에 용 나는 도모지 그말을할수가 업서요?』하고 어느 따뜻한 날 나어린 계집애가 하라버지 에게 이러케 물으니까 하라버 지께서는

『더 별소리를 다못는구나 꼬 슨 송이런는것을가지고 뭐드는 자랑꾀이니 그말을고지못지 말 어라』하고 그뜻을 아르켜주지 안햇습니다。

그러나 이계집애는 하라버지 의 말답을 듯지안코 날마다 꽃 과나무가 이약이하고잇는것을옷 고잇섯습니다。

어느날 솔밧에 바람을 빼 치고잇는 포드뎅풀은 낫을비할

흔된 안입니다。』

이약이이돌느를 포드뎅풀은 올크게드고 생각하기 시작하엿 습니다。그리고 그이약이를 할 미꼿에게 하엿습니다。할미꼿은 민들레꽃을 불러가지고 세꼿은 무슨 문데이나 어떠난꽃이의 토론하엿습니다。

의론해보앗드니 그이약이는지 금까지업는 이상한일이라고 생 각하엿습니다。그러자 나히먹어 서 허리가굽은 소나무는 세꼿 은꽃들을보고

『너이들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것니?』하고 갓꽃이 무럿습 니다。그래서포드뎅풀은 『남풍비람이 복사꽃때에 너는 이제얼마안가서 주어버린다하는 이약이를드럿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들은 알수가업습니 다。소나무하라버지!하라버지께 서는『죽엄』이라는것을 잘아시 겟지요?』하고 무러보앗습니다 『나는 그것을『죽엄』이라고들 그러니간소나무는빙그레우스면서 르지안는다。그것은 잠자는것이 다。오래동안 고요히 그리고한

『복사꽃아! 너는 네 얼굴이 아름다온것만 자랑하고 내말을 주의해듣지안는구나。만일 나 와함께 남풍나라 따뜻한 바다 가에잇는 우리집으로 가지안코 섬미가 고와한『대동생』이 오 면은 너는 시드러 떠러지지 안

(南風)이 새빨간 복사꼿을 어 루마지면서 이약이하는것을 귀 결에 들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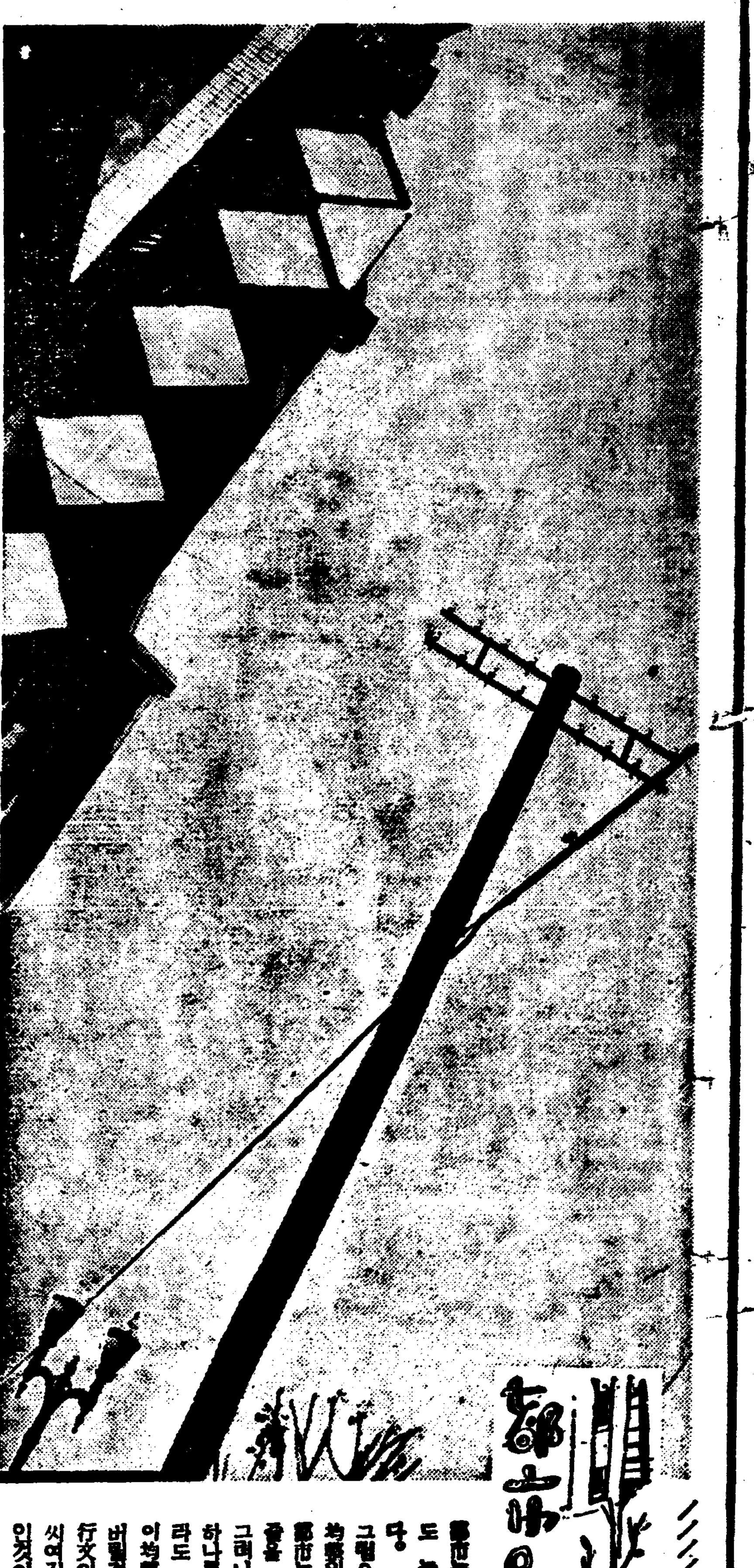
말인지 우리들은 알수가업습니 다。소나무하라버지!』

우리차지

벽에다 연필이나 크 레온으로 사람도그리 고 글씨도쓰고하는아 이가잇습니다。이런학 생이잇거든 곳학교로 말슴해주십시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아이얼골에 양펑이를 그려 다른학생들한테 구경을시키겟습니다。

(공서울 박선생)



文藝時評 ⑥ 簡潔과 深刻과 不自然

嚴興燮

金東里氏는 今年에 나온 새로운作家다 氏는今年 新年懸賞小說에「山火」라는 作品을 東亞日報에 當選하며 나보기에는아마 이번「新東亞」의「바위」와「中央」의「巫女圖」가 처음으로 發表되는것이나 아닌가 생각된다 적어도 數百餘篇 作品가운데서 當選된 作家라면 어느 程度까지 그作家의 作品을 對하기前에 어떤 期待를 가지게되는것은 다만 一般讀者뿐아니라 文壇人도 그러한것이다。

이 作家의 이달創作『바위』나「巫女圖」는 처음나오는 분의 作品으로서는 어느 程度까지 相當한 水準에 올랏다는것을 먼저 말하고십다。

「바위」는 至極히 悲慘한 문둥병患者가 집에서 동리에서 쫏겨나고 남편에게 버림받는 過程과 末路를 그린것이고「巫女圖」는 現代朝鮮의 一部典型的타입으로 아직도 暗黑面의그殘骸가 남어잇는 科學文明과등진 迷信風俗의 一種의「巫女」의 內面生活과 아울너 그末路를 그린作品으로서 이두作品이 어느意味로보면 作者의 意圖라거나 表現手法이 彷彿하다 할것이다

「바위」에나타난 作者의 手法은 深刻하려고 努力한場面이 만헛스나「巫女圖」는 바위에比하야 퍽 散漫한 便이엿다고본다

「바위」에 잇서서 문둥병난 마누라를 차저간 남편이 떡에다 몰내 비상가루를 뿌려 가지고 먹으라고 권하는 場面가운데에 일으러서는 이作家가 압날에 深刻한作品을 보여주리라는 한가닥 期待를 느끼게하는 조흔 描寫라고나할가!

「巫女圖」에서 느낀 表現과 描寫는 너무도 平面的이엿스며 散漫하엿고「바위」에서 갓다 作者가 억지로 맨들어버린感이나는 문둥병자의 最後인 죽엄의 不自然性이라거나「巫女」에잇서서 巫女모화가 죽는 場面의 描寫라고는 할지언정 深刻치못하야 不自然한것은 아직 作品을만히 써보지 못한 이作家로서 無理가아닌것이다

어쨋든 우리가 이作家를 어든것은 가장 큰 收穫이라하지 안흘수업다。

이번바위라거나巫女圖든부 籍을 가지고서 云謂할것은 아니지만 이作家의 이번달의 取材는 決코 나은것들은아니다。 이러한 取材를가지고 좀더能熟한 筆致를가진사람이 썻스면 실을만한 이두作品의 取材는貴한데가잇다 이 두作品가운데에 比較的洗練된 文章과 沈着한비치 들여다보이는 描寫가업지는 안타하더라도「巫女圖」에 잇서서「무녀도는 숲은그림이엿다」라는作者의 說明文으로부터 始作되어「옥이는 어데로 가지 모른다」로終結된 이 作品으로서는 반다시 잇서야할 作品構成上에 잇서서 한階段의 빠란것가 喪失되엿다고 하지안흘수업다。

앞으로 다만이作家의 精進을 비라고 이以上더 이두作品에 대하야 말하지 안흘려한다。

다만「바위」에 잇서서 쓰기 어려운「對話體」—그나마 사투리를 잘活用하야 作品을 끄러나아가것은 이作家의 압날을 期待케하는 조흔點이엿슴을 떠한마되 말하여둔다。

問題의 時代性 (八)

—人間探求의 現代的意義—

金午星

하이데겔은 人間에잇서서 가장 根源的인것은 有限性이라 하엿다。人間은 有限的인까닭에 항상自己의 有限性에 對하야不安을느끼며 無限에로

超越하려는 關心을갖는 것이다。그러면人間은 어찌하야 有限的이며 또有限的인 人間이自己의有限性을超越할수잇는가? 하이데겔에依하면 人間의生存은 세가지契機를 가지고잇다。事實性 頹落 覺存이 그것이다。事實性은『이미世上에 잇는것』으로 그것을被投性이라하며 頹落은『存在者의것에 잇는것』이며 覺存은『自己에 先在하는것』으로 그것을 投企性이라고 한다。事實性과頹落은 生存의 有限性이라면 覺存은 有限性의 超越일것이다。

그러나 覺存의 有限性의 超越은 時間性의 脫自的 視野的構造에 基해서만 可能하다。時間性은 旣在的 現前的 將來的 統一的現象이다。그것은 將來 旣在 現在란 세가지脫自(自己超脫)로서 일너지는것이다。어제가지 時間樣相을 生存의 三契機와 關聯시키면 將來는 覺存을 可能케하는것 旣在는 事實性을 可能케하는것 現在는 頹落을 可能케하는것이다。그러하야 時間性은 覺存事實性 頹落의 統一을

可能케하며 生存의 關心構造의 全體를根源的으로 構成하고잇는것이다。그러나生存의 關心은 有限性의 超越에잇다。그러므로 投企性인 覺存을 可能케하는 將來가 時間性의 優位를 갖고잇는것이다。즉將來가 作用하며 將來로부터 旣在가 생기하며 旣在的將來로부터 現在가 喚起된다。

人間의 生存은 日常的으로는 非本來的인 樣相으로잇다。自己를 自覺치못하고 다만 漠然한 概念인『사람』(Man)으로서 世界內存在로 被投되여잇다。이것을 事實性이라고 부른다。또한 生存은 日常的으로는 世界內部의 存在와『사람』에 依하야 完全히 支配되여잇다。이러한 狀態를 頹落이라고 한다。이頹落狀態로부터 自己를 復歸시키는것은 不安의 現象이다。不安에依하야 生存은 本來的인가 非本來的인가를 自覺하게된다。그러나 不安은 頹落으로부터 回復되수는잇스나 아직本來의 階段에 達한것은아니다。

本來의階段에 達키위하야는 先驅的覺悟性을 기다리지안흐면 안된다 覺存이 事實性 頹落으로부터 自己를 回復하는것은 有限性을 超越하야 存在可能에 對한了解와 關心을 存在可能에 갓는것이다

可能性과 了解하는 可能性別이잇다。了解될 存在可能은 唯一 無規定인것이나 了解하는存在可能은 自由인 可避的인 未成的인 存在可能이다。前者는 客觀的이라면 後者는主觀的이라고도 할수잇슬것이다。不可避한 存在可能은 오직 不可避的唯一規定的인것에서만 自己를 了解을 實現할수잇는것이다。

이러한 覺存의 存在可能에의 投企에 依해서만 生存은 有限性을 超越하게된다。이 覺存은 先驅的 存在可能에서『死』와『無』가 나타난다。『死에의』可能性이며『無에의』可能性이다。死와 無는 不可避한 可能性이다。그러므로 實存은 死와 無를 直視해서만 事實性 頹落을 超越할수 잇는것이다。

世界內存在로의(Man) 人間의 事實性 頹落은 社會性 客觀的制約性을 意味한듯이 보이며 實存可能性은 主體性을 意味하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말하는 事實性 頹落等 生存의 有限性은 社會的制約性이 아니요「사람」의 無自覺狀態를 意味하는것이며 覺存可能性은 世界人으로서의(Man)이自己의有限性을 自覺하고 일時的으로 世界人으로부터 超出하야 人格(Persönlichkeit)을 獲得하는것을 意味한것이다。하나 現代의 課題는 人間의 無自覺의 暴露에 잇지안코 社會性의 制約에 잇는 人間의 自由의 埋沒을 暴露함에 잇스며 世界人으로부터 超出하야 人格을 獲得하는데 잇지안코 世界人間의 [illegible]에 잇다。여기에하이데겔의 [illegible] 國際的孤立 國民的反感을 不顧하고『世界人』으로부터 超脫하려하고『人格』의 獨善과 結託할必然性이 숨어잇섯든 것이다。

文藝映畫의 期待 (三)

咸大勳

朝鮮의 映畫史가 十有餘年이 오란 긴 歲月을 보내엿지만 오늘날까지 한篇의 作品다운作品을 生產하지 못하엿다。이는 첫재로 資本家的 後援미테 그企業的 形態를 갓지못하고 한두篇의 作品을 製作할 돈賞만되면 곳 무슨映畫社니 무슨키노니 해가지고撮影에 着手하는때문이다。그래나 그보다도 더큰原因은原作 脚色、演出、撮影、俳優等이各各個性的으로 發揮하여 協同하야 硏究가업시 不誠實한 態度로製作하기때문에 오늘날 까지의 映畫史는 가엽시도 悲劇的出發

적어노코 마것이다。그러나 나는그들의 그過去映畫에 對한 熱意를 無視하려는者는 아니다 다만 映畫가한개의 藝術品으로써文化에 寄與할 實質한 部面에도 不拘하고 오늘날까지 그어떤 뚜렷한 貢獻을 하지못한것이 遺憾된바다 그러나 最近 文藝作品의 映畫化가 企圖되고 또 企業的인 映畫會社가 出現할形勢가 인 映畫會社가 나는 朝鮮映畫가 이제第二段的으로 實踐하야 비하야 實的으로나 도중的으로 飛躍하려는때 커—다란 關心을 갓게하는바이다。

文藝作品의 映畫化는 첫재로 文學과映畫의 接近을 意味하는데서 實意를 表하는것이오 둘재는 在來의 低級한 興味에만 迎合하려는 家庭劇를 完全히 淸算하야 面目一新 그高度의 藝術映畫가 될수 잇다는데에 또한 效果를 不動하는바다。

映畫와文學의 接近! 어는一九○三年佛蘭西「필림·다—큰」의 創立된後부터이거니와 其間에는 映畫가 한개의 구경거리로부터 發達하여 存在하지안햇다 그러면 文學의映畫化 다시말하면 文藝作品의 映畫化가 其後어찌하여 그가러대하게 되엿슬가? 이것은 最初 伊太利映畫의 歷史 形態를 보드래도 最初文藝映畫를 製作하거나 하엿섯다 [illegible] 藝術的價值를 渴望할수어섯기때문에 接近하면 文學이란것가운데映畫的이것이 根本的要素로 써드러가잇는때문이라고 할수 잇는것이다

그러고 文藝作品을 脚色映畫化하는것이 최신 製作上에잇서 여러가지로 質的向上을 圖할수잇는때문에 世界名作들이거의 映畫化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나는오늘날 朝鮮映畫가 文學과 接近하려는 그傾向에對하야 朝鮮映畫의 質實한 發展을 爲하야 또는 朝鮮映畫의 質的向上을 爲하야 眞心으로 歡喜를 禁치 못하는同時 今後 朝鮮文藝作品의 映畫化가 좀더 實現되여 文學과映畫의 接近을 圖하기를 映畫界에 바라는바다

다시말하거니와 조흔映畫는 完全한原作이 元來함으로써 [illegible] 하야 畫面에 비최는 보는詩다 그것은 文字에代하야「畫面메카니즘」에 依한것이다 換言하면 純然한 根本的立場에서 다시 進化하야 文化的作品行動으로 나가려는 意慾의 表現으로서 이文藝作品의 映畫化의 意義는 存在하는것이다

그러나 다시이와 附隨的으로 問題되는것은 文藝作品의 生產問題와 그를 어떠케 映畫化하느냐 하는것이다。

나는 最近 東京某映畫會社에서 製作한「[illegible]」를脚色하야 映畫化한다는報道를接하엿다 이는朝鮮日本作品의 映畫化되는 證據에 供給에이 不足하다는것을 意味하는것도 그하나요 또하나는이興化에 沒落해가는 地主階級과 新興부르죠아지의勃興하는 한개의 社會的 發展形態를 눈압에시는 볼수업슬마한作品的價値가 잇는데도 因由되것지만 어떠튼 朝鮮에도 映畫會社가 創設되여 本格的으로 文藝作品을 映畫化하게되다면그原作의 不足으로 大恐慌이 일어날것이다 이것은 東京의 事情이 이것을 너무도 明瞭히 說明하는것이 아닌가?

그럼으로 나는 이 機會에 잇서서 映畫界에 對하야 文藝作品의 映畫化를 積極的으로 計劃할것을 力說하는同時 朝鮮의文人에게 좀더映畫가 될수잇는 人生的인 作品을 生產해주기를 바라는바다 그러타고 나는 純粹文學의길을 버리라는것은 아니다 그리고 文學의 社會性 階級性民族性을 忘却하라는것은아니다 다만 問題는 映畫와 文學의 接近! 文學과 映畫의 藝術性을 좀더 深化시키자는 것이다 는것을 말할뿐이다 (完)

漢詩

淸明—押烟　桐岡 考選

一等　市內壽松町一四五　李承高

杏酪聊傾藥玉船
春陰如水浸靑氈
餘寒未散條風後
微暖猶徵穀雨前
萬藥香梨白堆雪
千絲細柳綠縈烟
寸心借得群生樂
不啻晴窓日抵年

評曰 全篇深得詩人之體以優句 其爲老態

都會의 表情

都市는 어느角度에서 보아도 늘 [illegible]의 宣言이다

그럼으로 여기에는 前衛과 美가잇스며 따라서 都市는 아무리해도 興奮을 줄을 모른는것이다。

그러나 假令 여기에서 줄 하나를끈커나 벽돌한장만이라도 빼다면 都市는 그만 이興奮과 前衛의美를 일허버릴것이니「루—마」의 記行文이 항상 莊嚴한文字로 씨여지는것은 진실로 이때문인것이다。

映畫의 文學的考察

② 씨나리오와文學의特殊性

朴基采

이리하야 演劇의 基礎는 프로트에 依하야 動的으로 展開를하엿섯스며 言語에依하야 表現이 되는 感情的 視覺的으로 實體化되는 表象, 即 藝術的形象의 시스템으로서의 戲曲은 即 文學으로서 理解할수가 잇섯든것이다。

또文學面에잇서서—心理主義와 反心理主義, 唯物辨證法等에서 드라마트르기—의 一般問題 모—든 論爭은 文學一般

領域으로 移行을하게되는것이며 따라서 當然히 이 論爭에 잇서서는 甲乙이 다가리 藝術文學의 例와 同時에 드라마트르기—에서 말하게 되는『對話』과『爲所』를 가지고 議論을 하게되는것이다。

그럼으로 드라마트르기—의 舞臺的特殊性으로 될수잇는것은 드라마의 基礎인 形象이 아니라『樣式』이라고도 말할수잇는 舞臺의 特殊性과 舞臺的印象의特殊性을 限定할수잇는 特殊한技術的構成方法을 말할수잇는것이다。

舞臺的印象의 特殊性이라는것은 우리가

劇場에 가서 戲曲作品을 讀書하는것이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듯는데잇서서 다른모로 別이된다。舞臺的印象은 다른모든 舞臺의 技術的特殊性과가리 作者를 束縛하니 아닐뿐만아니라 도리혀 作者가 한힘을엇게하야더욱作者는 特別한表現力과 壓力을 强要할수잇게되는것이다

이리하야 演劇에잇서서 作家 演出家 美術家 俳優其他各活動의 境界가 明白하여지는것이다

演劇의 基礎는 脚本이다。드라마트르기—의 表徵의 드라마트르기—의 危機는 同時에 演劇의 表徵일것이며 또 危機일것이다。엇재서 그러냐하면 脚本의缺乏(또는低下)는 演出者가 아무리 努力을 하여도 所用이 업게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脚本의創意를 舞臺우에 實現식히려고할때에는 演出者가 어느程度까지 作者的態度를 取한다는것은 決코 不當하다고는 할것이며 또 演出者가 脚本을 舞臺的要求에 接近식히기爲하야 修正을 하는것도 當然히 理解를 하지안하면 아니된다。

이리하야 演出者는 形象의辨證法을 理解하면서 이辨證法이 要求하는—作者로서도 解決을 지못하는 結局解決을 지게되는것이다。

더욱演出者는 自身이 演出者나 作者를 兼할수가 잇는것이다 그러나 이는 簡單한 條件例에不過한것이며 一般的으로 文學을

拒否하려고하는 演劇의意圖가 잇다하면이는結局 演劇을 死滅에 到達케 하는것이다。

또文學의 엑스트를 拒否하는 演劇이면 이는必然的으로 거기에서 나타난 空虛를 俳優와演出의技巧로서 塡充할수밧게 업는것이다。그러므로 演劇에對한今日에 잇서서는 다음과가튼 말을 하게된다。

即 文學의 演劇에對한(이는 映畫에잇서서도 同一하나) 影響—肯定的이거나 또는 否定的影響—過程에는 다만 文學一般을 同一視로 상당한것이아니라더욱 具體的으로 表示하여야 할것이다。그러면 여기에는 엇더한文學이란것을 말하지아니하면아니된다。웨 그러냐하면 반다시文學이면 아무文學이라도 演劇을 有利하게 하지안하기때문이다。

例컨데 象徵主義文學은 그原則이 演劇에 잇서서 演出者가 이를 論理的究極에까지 追究할때에는 드라마를 滅殺하여버릴 念慮가 잇는것이다。하며 이러때는 할수업시

俳優는 所用이업게되며 演出者는 俳優代身에 人形을 쓰게되는 結果에 到達하게되는것이다。

本劇場外는 어느程度까지 드라마트르기—

佛蘭西의 人民戰線

그勝利의 時代的意義와 「로—랑」「지—드」兩氏

四月二十六日, 第[illegible]日의 第一[illegible] 에 [illegible] 서「人民戰線黨」는 [illegible] 하야 [illegible] 하고 人民戰線內閣을 [illegible] 影響이 다。人民戰線(표플·포퓰레—르)라고하는것은 共產黨、第二인터—나쇼날의 社會黨、거기에 [illegible] 會에서 第一黨이엿든 [illegible] 等 佛蘭西의 全左翼政黨을 [illegible] 한 [illegible] 을 말하는것이다元來佛蘭西는 [illegible] 의 自由 [illegible] 하는나라임으로 政黨이란것은右에서左까지 二十餘黨에 [illegible] 인데 特히 가장 [illegible] 라고해도 共產黨과 社會黨과는 [illegible]

[illegible] 이 [illegible] 라가 [illegible] 도中小商工業者와 小農民의우에 선바탕하자면 小市民政黨이엿 [illegible] 一히 하지안는것이다 그것이 昨年의 二月事件 [illegible] 에서 [illegible] 야 [illegible] 年에 一國의 [illegible] 하다고하는것은 [illegible] 佛蘭西가 [illegible] —시즘의 危機에 直面하야 歐洲에 [illegible] 이 [illegible] 한때문이라고 할수밧기업다。

×

[illegible] 反映하는人心不安의 [illegible] 서 [illegible] 나

[illegible] 의 左翼分子까지 [illegible] 記念日、休戰記念日에 [illegible] 大衆데모를 行하고「평화 自由」와 平和를 부르짓고 人民戰線의 [illegible] 를 [illegible] 그때서 그때는「파—시스트」[illegible] 도 昨年十一月 맛치내 [illegible] 의 [illegible] 를 하지아니하면 안되게쯤 되엿다。

國家改造、[illegible] 에 對한現狀維持、共和制度擁護라고하는두개의主張을에워싸고 지금은 佛蘭西의政界는 二分되여、兩派의 前衛分子가 活動하는바 [illegibl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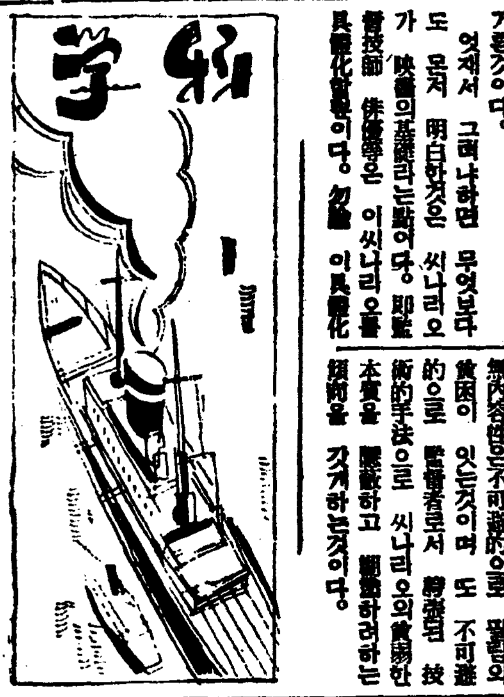
[illegible] 要求가 [illegible]「앙드레·지—드」[illegible] 의 文書 그 [illegible] 를 가지고잇는[illegible] 人民戰線의 [illegible] 味라고할수잇슬것이다 共產黨은 [illegible] 戰線統一을 [illegible] 主張하고 잇는바를 [illegible] 에서는 一九[illegible] 十餘의 [illegible] 하고 [illegible] 進出하엿스나 人黨를 엇은 [illegible] 進社會黨이 어데까지 [illegible] 을 직힐 것인가 그보담도「팟쇼」[illegible] 에 注力할 [illegible] 에 對하야 [illegible] 界가 不信任을 表明하는 結果 二月六日事件을 再演[illegible] 스나 今後注目에 値하는 [illegible] 다。

그러나「나—포레온」은 이 [illegible] 와 가티運命을 [illegible] 엇스나 넘우나 高價 [illegible] 때 단순와「나이프」「포—크」[illegible] 를 엇을수잇슬때 [illegible] 만 내여노코 [illegible] 게는 [illegible] 다。

『알미늄』時代

그數奇한發見五十年史 (上)

金淳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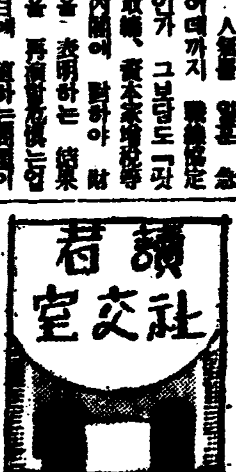


『알미늄』은 오늘날 가장 貴重한 金屬의하나가 되엿다。어느집에서든지『알미늄』으로 만든 器具를 반드시 한두개식은 가지고잇다。이러한『알미늄』이 지금부터 五十年前까지는 가장 貴金屬의 하나엿든것이다。

『알미늄』이 發見된것은지금부터 一百十一年前 即 一八二五年에 丁抹의科學者『엘스텟』드가 非常히 苦心한結果『알미늄』과 鹽素와의 化合物에서 小豆大의『알미늄』을 分離析出한것이 비로소 人類가 單體의『알미늄』을 어든 始初이엿든것이다。二年後 獨逸의『웨—라—』가 가튼原料에서 더욱 簡便한方法으로 幾分 多量의『알미늄』을 諸出하엿다 그래서 여러저러서 이것을 模倣해서『알미늄』을 諸出하엿스나 어느것이나 非常히 珍奇한金屬으로서 硝子箱에 깁히 秘藏되엿든것이다。

『알미늄』은 이러케해서 非常히 엇기 어려운것이엿스나 金이나 白金에比하면 裝飾品으로서의 價値가적은때문에 그價格은 놉혓스나 一定하지는아니햇든것이다。『웨—라—』의 發見直後는 一파운드에 百六十弗이나갓다고하며 一八五二年에나포레옹三世가 卽位할때는 一『파운드』에 五百四十五弗(一匁約十六圓)으로서 지금의 金이나 白金價格보담 三四倍이나 놉핫다)이

讀者社交室



◀讀者諸賢께 널리問請합니다。 小生의 友人中光化門通某官廳에 勤務하는 三十歲靑年이 有하온데 齊宿處에 困難을 밧는中이오니 唐珠町、中學町、淸進町、壽松町、光化門通、瑞麟町、武橋町、西大門町等十五分以內에 通勤할만한곳에 淸潔하고 양전한 處所의 房에 朝夕二食에 食費는 一個月二十圓以上二十五圓까지 支拂하겟습니다。有意하신분이 게시오면 時急히 左記住所로 通知해주시면 그대로即時本人으로 訪問케하겟습니다 京城府淸進町一二○七番地 金文龍

◀人間이人間德性을 修養함에는如何한 道德規範에德性을 맞추어 고저하게되고 人間이 人間德態에 새新境으로 前進코저함에는 人間德價이 障礙가되오니 此를 兩全함에 무삼長策이잇습니까 龍川 崔一珏

◀本人은女子이온데 조용하고 정결한 여염집下宿을 願하옵는바 食費는 適當히 支拂하겟사오니 有意하신분은 下記住所로通知하여주십시요 京城仁寺町一七二 朴淑禧

◀『저는 京城某官專就學中이온바 普校나 中等校在學中인子弟를 有하신분으로 共學시킬意思가有하시옵거든 此讀者社交室欄에記하여주십시요

◀本人은 市內二高普五年生인데 性質이快活하고 學校成績優良한데 只今下宿하고잇는집이移轉함으로 他所로 學校에서徒步二十分以內의位置한 獨房하나구하니 有意하신분未安하지만 紙上感은 左記住所에 通知하여주시기바랍니다 京城府町一七四ノ二 李康護

◀現代新語(모단語)朝鮮語로編纂한것을 買入코저하오니 讓渡하실분이나或은 販賣所를 아시는분은 本欄으로 通知하야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龍岩浦 李慶兒

◀明治三十九年陰六月三十日(光武十年丙午)陽何月日이온지本欄에 敎示하야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illegible]

◀金在植氏에게 大正六年(丁巳年)六月二十四日은 陽曆으로는 同年八月十一日이되고 또月建은 丁未 日辰은乙酉올시다그다음 貴時의干名은戊寅이되옵니다 花山縣舞生氏에게 大正三年陰二月二十八日은 三月二十四日이옵고 또八月廿二日은 十月十一日에該當합니다 咸北鏡城 李[illegible]

◀小生은今年二十歲의 男子온데 映畫나 劇界에 뜻을 이르고저 決心하오나 어찌하면 映畫나 舞臺俳優가될까요 方法이나 叢談等住所를 詳細히 下敎하여주시요 또그런곳에 紹介하여주시압소서 求友生

昭和十年度二月十七日發行 大望 洪原邑內 一愛讀者

◀生은 文藝小說을 求하는바 舊刊의「再生」「無情」外에 아무冊이라도 조흐니 大衆小說인 尹白南의「大盜傳」과 交換하실이는 左記住所로 通知하여주서요 全北金堤邑新豊里

◀예前、入峰金基鎭氏 編輯인 續錦靑年朝鮮 一號二號를 讀하시든분은 左記住所로 보내주시면 批評을 드리겟습니다 慶州郡邑東部洞一二七 朴[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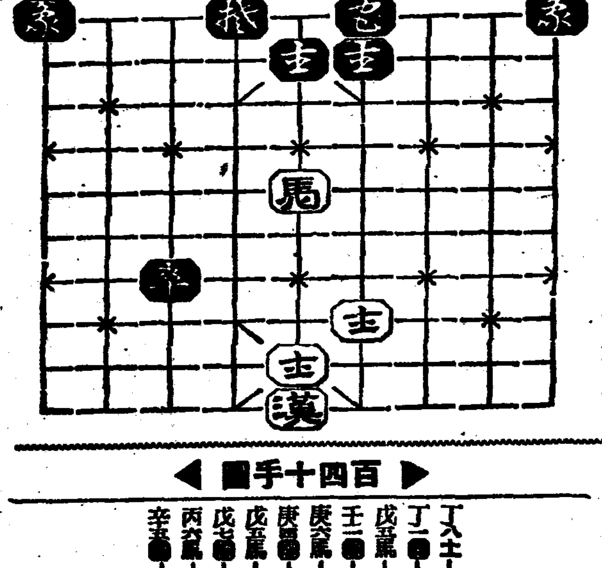
◀龍川君任南洋群島往來하든崔峻善氏住所를알고저하옵니다。京城府宮井町八十三 崔峻伯

◀영화감독 제선생님께 하나이다 小生은 금년 이십세에 소변으로 신문배달을 하옵는바 모든것을 각오하고 영화배우로서의 성공할 구든 결심이온바 어떠한 난관에 봉착할지라도 초지만은 결코 꺽지 안켓습니다 어떠한 수양과 서적이 필요하겟습니까 본인의 필요하겟습니까 하야 친절히 하교하야 주시기를 천만복망하나이다。 市內 若櫻生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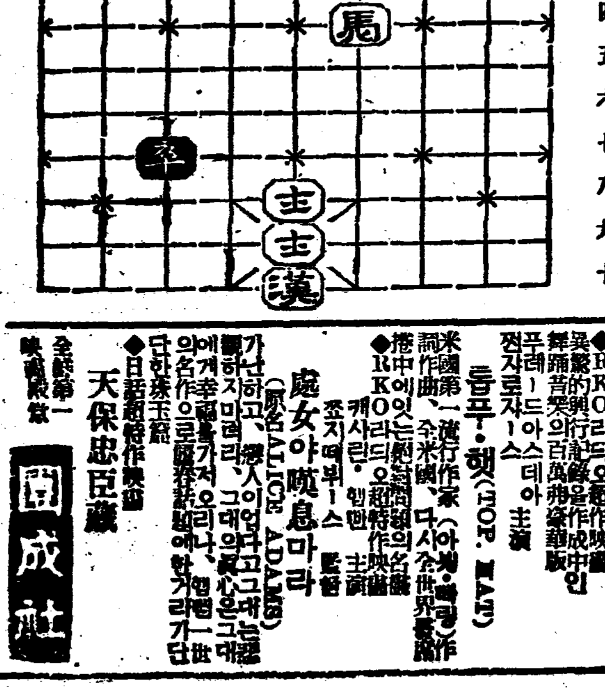
漢先手 第一兵 李在鳳 對 李明輝

◀百三十手圖▶



◀百四十手圖▶

丁入士一戊
丁一卩一庚二
戊卩一庚六
壬一卩一庚四
庚卩一戊五
庚卩一戊二
戊卩一丙六
丙卩一丁三
辛卩一己五



朝鮮劇場 仁寺町 電光三八○

五月七日부터 [illegible]

◎秘密 [illegible]

◎카라—의 鬪牛師

◎愛情의 價値

[illegible]

若草映画劇場 電本三五○四

五月七日ヨリ十一日迄 豫告封切大公開 晝夜二回 正午開演入替無

今週の番組 (各等 大人五十錢 學生三十錢均一)

▲コロムビア社超特作日本版 地獄船モルガン D・ロス・レダーマン監督作品 ジョージ・バンクロフト・アン・サーザン主演

▲獨ファナール社超特作日本版 セロ彈く乙女 エーリッヒ・ワシュネック監督 レオ・スレザーク・ハンナ・ワーグ主演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放浪記 林芙美子原作・木村莊十二監督 夏川靜江・堤眞佐子主演

次週十二日ヨリ三日間 PCL『エノケンの近藤勇』コロムビア映畫『罪と罰』

優美館 黃金町 電光三九五

藝術映畫의最高精華篇!! 五月六日부터二大名畵를 公開 夜間은七時四十分부터 始映합니다

파社超特作超級日本版 永遠に愛せよ 巨匠헨리—하—사웨이氏大作 게리쿠—파—氏 안하—데잉그嬢 主演

佛蘭西아리스프로超特作日本版 タムタム姬 [illegible]

뉴—스 全

團成社

天保忠臣藏

處女야 歎息마라

[illegible]

通俗野談

布袋記 (九)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불단금가락지 (八)

녀왕께서 분향사를 향하시고 행차하시는중 길한모퉁이에서와자지껄하는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은 가뒤젓든 지귀가 어떠케 뛰여나와서 대가(大駕)뒤를따라온 까닭이다。

『어찌해 이렇듯 요란한고?』

하시고 녀왕께서는 시신 한사람을 불르사 그 까닭을 알어밧치라 분부하셧다。

시신은 그 소란한곳을 갓다와서

『미칠 거지한놈이 대가압흐로 뛰어들나 하므로 그자를 마노라고 소란스러워진것을 황송하옵로 알외옵。』

하고 시신은 요란스러워진 까닭을 대강리만 알외고 차마 그 자서한 내막은 알외지 못하얏다。

『미친 거지는 누구며 미친까닭은 무어인고?』

하시고 녀왕께서는 좀더 자서히 물으셧다。

시신은 주저、주저하다가 떨니는 음성으로、

『미친거지의 일홈은 지귀라하오나 그 미친까닭은 알외압기가 너머나 황송한줄노 알외오』

『무슨 일이고 숨길것은 업다。』

『황송하오나 지귀가 미친까닭은 상감마마를 지극히 사모한 탓이라고 알외옵。』

『그래?。고마운 말이다。』

하시고 녀왕께서는 너그러우신 우슴을 우수시다가

『참으로 그러라면 나를 딸아 오래랴。』

하신다。시신은 녀왕의 명을듯고 어안이 벙벙하여 섯다가 지귀에게 가서

『지귀야!。너 참으로 상감마마를 사모하거든 딸아 오랍신다』

하고 지귀에게 어명(御命)을 자서히 전하얏다。

시신이 떠든 까닭을 알고간 뒤에 여러 사람들은

『허!。지귀놈은 꼼짝업시 죽엇고나。말할 자식。언감생심이。』

하며 장차 녀왕의 지엄하신 분부가 내리실것을 짐작햇다。

그러매 시신이 전달하는 그 어명을 듯든 여러 사람들은 그 어명이 천만 의외인것을 놀나지 아니할수업섯다。

그리고 그모아섯든 사람중에 지귀를 욕하고 꾸짓고 구박하고 때리든 사람은 지난일을 뭅시 후회하얏다。

그것은 지귀가 분명히 잘되게되엿스니 그 앙갑흠이 잇슬줄을 생각한 까닭이다。

지귀는 어명을 듯자 여러사람을 비웃는거리는 듯이

『아가까지 거지든 지귀가 지금은 어떠케 되엿느냐?』

하며 너머나 깃버워서 두손바닥을 치고 몸으로 매암을 돌면서 날뛰다。

그 배만 남흔 몰골이로 춤도 추고、뛰기도하고、웃기도하며 떠구나 빼무는 양은 차마 볼수업섯다。

전가텟스면 그 꼴을 보는사람중에서

『이 자식아!。귀신이 탈춤주는것과 가튼 그 꼴은 차마 볼수업다』

하고 용당 쥐여박어 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엇슬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지귀가 무슨짓을 하든지 입도 뻥끗 아니하고잇섯다。

『쉬!。좀더 빼이라』

하는 벽제소리가 매우 요란하며 녀왕께서 타신 덩(輦)은 살가티 빨으게 닷는다。

덩 네귀퉁이에 달닌 옥패(玉佩)소리는 정그렁、정그렁、몹시나 청아하게 들닌다。

녀왕의 거동길이 살가티 빨으니 배곱흐고 곤위하고 다리힘업는 지귀로서는 딸어 갈수가업섯다。

그러나 지귀는 속마음으로써 녀왕의 지극히 아름다우신을 생각할때 마다 새긔운이 나서 길에 쓸어지지 안코 여전히 줄달음질노 좃차간다。

녀왕께서는 어언간 분황사어귀에 당도하섯다。

그리고 여러중들의 공양한 지영을 받드시며 바로 절안으로 들시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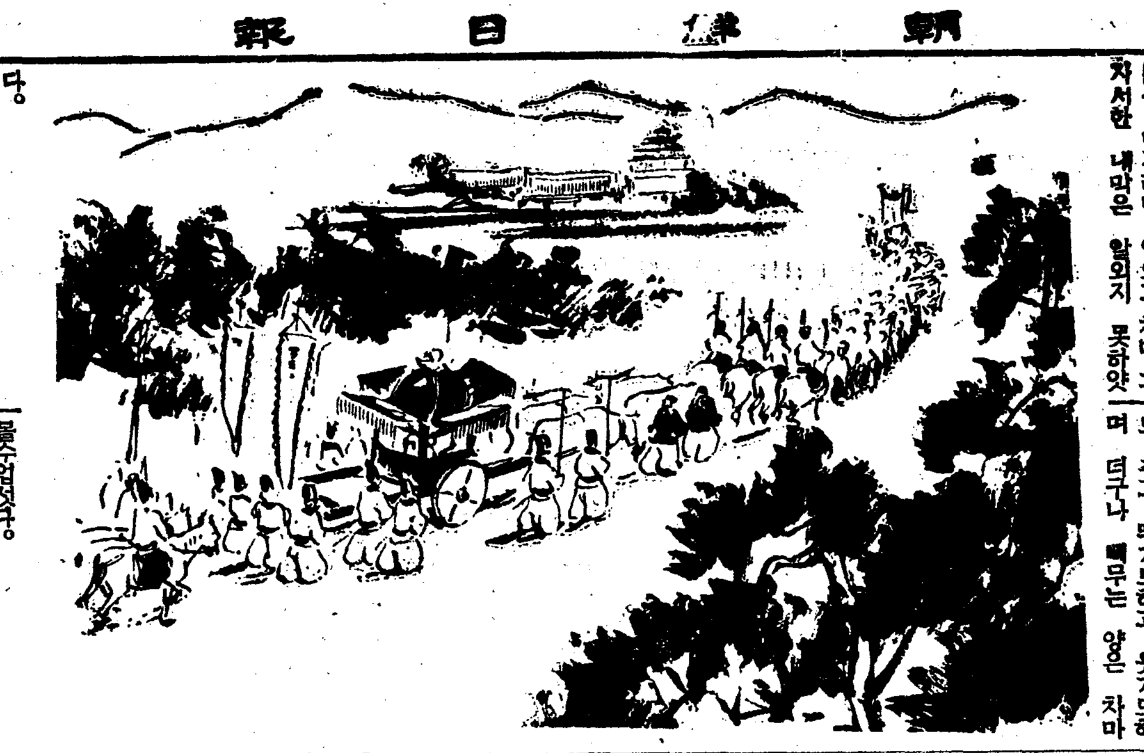
지귀는 죽을 힘을 다하야 역시 절문안까지 당도햇다。

그래서 곳 절안으로 드려서라할 지음에

『여기는 못드려와!。』

하며 벽제하든 무사들은 지귀의 멱미를 잡어 문밧가그로 내동댕이 첫다。

지귀는 땅에서 데굴데굴 굴느며 팔다리가 때때해진다。



映畵界挿話

米國아카데미賞 三四—三五年度

去三月五日밤 아카데미(米國映畵藝術、科學協會)의 年例晩餐會席上 一九三四—一九三五年度의 優秀映畵投票를 行하야 각각 黃金像을 授與하얏다。

▲優秀映畵賞 戰艦、파운틔號(메트로)

▲優秀演技賞 女優。베티·데뷔스(와나映畵『靑春의抗議』에 잇서서) 男優。빅타·마크라그렌(라듸오映畵『男子의敵』에 잇서서)

▲優秀監督賞 쫀·포드 그여시(『男子의敵』에 잇서서)

▲優秀原作賞 벤、·로及찰스、마카사(파라마운트映畵『살아잇는모레아』에 잇서서)

▲優秀脚色賞 닷드리、니콜스(그여시『男子의敵』에잇서서)

▲優秀撮影賞 할、모아(와나映畵『한녀름밤꿈』에잇서서)

▲優秀美術監督賞 리차드、데이(유나이테드映畵『따、엔젤』에잇서서)

▲優秀錄音賞 월라암、스타인캄프(메트로映畵『바람난公主』에잇서서)

▲優秀作曲賞 웰렌及듀빈(와나映畵『골드、듸가스36年』에잇서서)

▲優秀按舞賞 데브、골드(메트로映畵『춤추는부로드웨이』와『수봐리에의巴里』에잇서서)

▲優秀編輯賞 랄프、도손(그느녀『한녀름밤꿈』에 잇서서)

▲優秀助監督賞 크렐、보샨(파라마운트映畵『벵갈의槍騎兵』에 잇서서)

▲優秀短篇賞 漫畵『세마리의새끼고양이』놀트·듸스니 喜劇『작자는方法』

그러고 優秀映畵의 第二位는 라듸오의『男子의敵』第三位는 와나의『海賊블루드』요 男優演技의 第二位는『黑地獄』의 폴·무니 第三位는『戰艦파운틔號』의 찰스·론톤이요 女優演技의 第二位는『색시여 嘆息말라』의 카다린·헵반 第三位는『逃亡가면나는실소』의 에라사베트、벨크나요 監督의 第二位는『海賊블루드』의 마이켈·카틔스 第三位는『벵갈槍騎兵』의 헨리、하서웨이 等이라고

海外映畵消息

佛蘭西

『放浪者』(페르낭·리벨스作品) 『잔·리슈팡』의 有名한戲曲을 『페르낭·리벨스』氏가 映畵化식힌것인데『리벨스』氏의 演出은 再編輯을 要하는것이나 그럼에도不拘하고『스토리』의 情感의놀롭과 演技 撮影 音樂이 다조하서 觀衆에게呼訴하는힘이크다。스토리는어느農家의 딸에게 戀愛한 放浪者가 또 길을떠나는 誘惑을이기지못해서 떠나버리고마는것이다。그러나 二十年을지나서 다시 그가 도라왓슬때는 그는 그女子와의 사이에서 난딸이 不幸한境遇에잇다는것을 알고서 그들은 그딸을 幸福스럽게만들고『크리스마스』날밤에 또 길을 떠나고마는것이다。放浪者에 扮裝한이는『비롤·프라샹』氏로서 훌륭한 演技엿고 그를 戀慕하는『히로인』는『다니아·페돌』孃인데 이亦是 善技엿다。其他『조르쥬·코랑』氏『유-르빌』氏『모르롱』氏『리비엘스·카데에』氏『류시-·데-제』孃等의 出演이데 撮影은『만드뷔레』『리보-』兩氏 音樂은『리알코·리슈팡』氏

템풀애기의하로

世界의재롱거리

ウテナ 雪印 バニシングクリーム

우 테 나 크 림

—無脂肪性—

잘밧고잘견듸는 살결따문에참다운

ウテナ粉白粉

美人의標準은

무엇보다美白!

하나에도 둘에도 白色
셋에도 넷에도 결이가는
바늬싱크림은 뺄수가업는것엡니다

定價 三十二錢·六十四錢

아츰에도……바늬싱

누구에게나再粧美에맛는 낫씻슨뒤에곳바늬싱크림을 솜죄밧더서살결손질에마움둡니다 시랑。 바르면 살든한快美는 初夏의爽風 에업맛고 조곰도찐득이지안습니다

살바랑保守神으로서……
通學에도알맛는化粧……
面刀한뒤에 바르시면은……

낫에도……바늬싱

化粧下에바르시력 우데나粉白粉、우데나호호베니는 特히 美麗하며 近代的表情化粧이넘치여 一層더 빗나게됩니다 결을부드럽게 白粉이마친잘밧는마넌지潤을 갓게하며 차분차분 自然스럽게 白粉을 살결에어울니게하며— 化粧이밀니지안케하는

濃化粧下에도……
淡化粧下에도……

저녁에도……바늬싱

沐浴한다음 살결에 快適하며 潤澤을주게하며 잔주름을펴서 彈力잇는若肌로맨드러줍니다 餘分의脂肪分을中和식혀 죽은깨를防止— 벗거룸을업시하고 쎄하얏케 속살부러美肌을도드는

죽은깨를防止……
벗꺼룸防止에……

누구에게든지차분차분
그것은스마-트하게빗나
는우데나粉白粉의
評判잇는八色標準品!

肌色 濃肌色 나츄렐色 白色 健康色 부룬 오-클一號 오-클二號

東京 久保政吉商店

11.5—9.1

稅制整理의不公 府會員結束反對

五名의執行委員을選定하야 知事를訪問意向打診

【新義州】세계(稅制)정리는 중산계급의 부담을 경중시키는것은 물론 그보다더욱 심한것은 종래의 면세(免稅)표준액 륙백원을 사백원으로 늘엿는결과 무산계급에 폭탄적과세이숨놓이트려 맹렬한 반대의 원성이고창되여잇슴으로 신의주부회의원 야원(野原)씨는 이에대한 건의안(建議案)을 제출하엿든바 즉석에서 시원통의 찬성자를어더 봉화(烽火)를 올리여 사건의귀결이 주목되여잇든중 지난사일오후 신의주부회의실에서 열린 호별할부과정부회(戶別割賦課定府會)에서 야원(野原)의원으로부터 먼저 건의안에대한 토의를 한후 본회를 개회하자는 긴급동의를 제출하야 부회협정을경한후 건의안을 토의한결과 야원(野原)외 일본내지인 의원두명과 조선인 의원 정원섭(鄭元燮)김종원(金宗源)등 다섯집행위원을 선정하야 건의안에대한도지사(道知事)의 의향을 듯기로 결정한후 폐회하고 오일오전열시에 도지사를방문하기로되엿다

〃改正된稅制를 다시改正은不能〃

平北道知事談

【新義州】금번사월일일부터 실시하는 새로히개정된세제(稅制)는 중산계급과 빈민계급에만 가중한 부담을 하게하얏다하야 신의주일반부민의 불평이 놉하젓고 따라서 신의주부회에서 말성이되얏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신의주부회에서는 결국 이문제에대하야 『이불합리한 세제를개정하거나 또는 즉시 이를개정치못할 사유가잇다하면 개정할때까지 도지사의 직권으로그실행을 유예하도록하자』는 건의안을 가결하고 그실행위원으로 정원섭(鄭元燮)씨등 여섯명을선정하야 지난륙일 평안북도지사를 방문케하얏든바 도지사는 『이세제개정은 벌서 도회를지낫슴으로 이제다시 또개정할수는없다』고 하얏다한다

新浦公立普校 學父兄會總會

【新浦】신포공보학부형회 제륙회정기총회는 수일정오 당지보교에서 부회장 박남연(朴南淵)씨 사회로 개회되엿다 동회의제제 보고가끗난후 회원으로부터 실비도 위생회비 이백원의공급소비와 기타용단의 공급소비에대하야 임원회의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하는동시에 임원들에게 징계를 비난하엿스나 임원들이 책임사직을하여 문제는 해결되고 림시의장을선거하니 박영서(朴永緖)씨로 피선되여 회의를 진행하고 일반의안에잇서서 회원으로부터 당지보교신임세의건에 대하야 실물을 적별하는동시에 당국자에게 그지상여부를질문하엿스나 교장의결서으로 인계속하야 명년도예산외 조선인학부형회의 청구의건에 임하야는 신임위원에일임하엿다는바 신임위원은 다음과갓다 會長 [illegible] 副會長 [illegible] 書記 [illegible] 評議員 李貴永 金錫俊 朱[illegible] 二十一名略

普校設立基地로 六千餘坪을寄附

沃溝姜順秉氏美擧

【群山】전북옥구군 회현면(沃溝郡會縣面)에는 초등교육기관이업서오던중 작년도에야 동면내의 유지들의 궐기로 학교의설립은 보게되얏스나 또하나 의난관은 교지(基地)문제이엇섯든바 그를아는동면 대정리(大政里) 사는강순병(姜順秉)씨는그다지 넉넉지도못한 처지에 자기지방의 교육을 위하야 동교부지로 오천팔백평의 토지를 매수하야 긔부를 하얏다는바일반민들은 그에대한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失戀한人妻 鐵道飛入自殺

【江西】지난사일에 평남선조촌역(橋村驛)부근에서 제구오칠호 려긔동차가 평양에서 진남포로내려가든도중에 어떤녀자가 뛰여들어 자살하엿는데 그의신원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대동군룡산면상상리(大同郡龍山面上上里) 이심신(李心信)의처 김신호(金信浩)로서 정신이상으로 그와가티 자살한듯하다고한다

傷害致死인가? 屍體는解剖決定

疑雲의鑛夫急死事件

【新上】본적을 함남영흥군진평면룡천리(永興郡鎭坪面龍川里)에 두고 정평군장원면 사수리(定平郡長原面)모광산광부로 잇는 김명조(金明祚)(三二)가 지난사일 오후오시경 신상(新上)시내에잇는 모의원에 치료바드려오다가 문간에 드러서면서졸도하야 그대로 사망한 사건이 잇섯는데 이급보를 바든 신상소(新上所)에서는 여러가지로미루워상해치사(傷害致死)의 혐의가 농후하다하야 피해자와 그전날밤 싸웟다는사수리 리병신(李炳申)(假名)을 장원주재소(長原所)에인치하는일방 오는칠일에는 정평리 배식(李埈武)공의의 집도로시체를 해부키로 되여외운에 싸인사인(死因)은밝혀질것이라한다

任憲淳氏逝去

【大田】신흥대전의 거석자이며 제이보통학교(第二普校)의 설립자인 임헌순(任憲淳)씨는 다대한공적을남기고 륙십륙세를 일기로 지난사일 대동정본댁에서 별세하얏다는바 일반시민은 그의서거를 퍽으나 애석하게생각하고잇다고한다

溫水里支局主催 金剛山探勝募集

【江華】본보 온수리분국에서는 금강산탐승단을 모집한다는바, 매인당 려비는 이십오원으로식비차비사진대 전반을 포함한것으로 온수리출발은 오는 삼십일로서 오는륙일동안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청기한은 이십구일까지 바드리라는바 지원하시는분은 하로밧비 본보온수분국에통지하기를바란다고한다

大邱專賣局內에 託兒所設置?

【大邱】대구전매국(大邱專賣局)내의 녀직공이 오백칠십여명이나 되는중에 이백사십명이 기혼직공(旣婚職工)이라한다。 종래에이 들은 아기보와줄사람까지 다리고 가서 쉬는시간마다 그어린아기에게 젓을멕이면서 쓰라린직공 사리를 계속하여왓다한다。 이에 눈뜬 대구전매국에서는 녀직공들의 유아를 위하야 탁아소(託兒所)를설치하고 근무중 탁아소에서 일절맛터서 기루기로결정되엿다한다。 일로말미아마 이백여명의 녀직공들은 열시아의 고민은 물론 업서젓다고한다

種穀釀出强勸後 實際買收는半分

넉넉지못한것모아운반까지한 農民面當局輕擧非難

【新興】수년이래로 계속되어남도의 산지대각군의 흉작은 맛츰내 종곡(種穀)의 부족을 보게되어 신흥군 동상면(新興郡東上面)에서 년맥종자(燕麥種子)십만관을 보내기로 당국자들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엇섯스나 동면역시 수년간흉작으로십만관까지는 지출할수업다고 농민들은 이것을 환영치 안는데도 불구하고 면당국은 면직원들을 각동리로 파송하야 집집마다 곡식창고를 뒤추어서 그집그집의경작에 쓰일 종곡만 남기고는 전부내이게하여 그종곡의포대(包袋)까지 배부하므로 농민들은할수업시 판매되는터라장까지 운반하게되엿든바 어쩌된노릇인지 십만관을 운반케하여 노코는 그반인 오만관밧게는 요하지 아니한다 하므로 농민들은 도로운반하여 집으로 가지고가게되엿을뿐만아니라 부전호반(赴戰湖畔)과 가튼곳에는 모이게만 하고는 전혀 가저도 아니간다하야 농민들은 면당국의 경솔한 처사에 비란이 놉다고한다

郭新興郡守談

별항보도한 사건에 대하야신흥군수는 왕방한 긔자에게 다음과 가티말한다 사긴 사개군 흉작지에 대하야 당국은 그구제책의 한가지로 종곡을 배부케되어 도로부터 동상면에서도 내이기를 요구하여오므로 애초에그곳종곡마제하고는 전부거출할수업는가? 하야 구장회에 문의하엿드니 약십만관쯤 내이겟다하므로 그리알고잇섯는데 동경사변이 돌발하자 총독부외 예산의 통과가늣게되고최근 승인된예산도 궁민구제금 칠십만원요구가 삼십만원으로되어 자연종곡도 예상대로못주게된후에 다시 구장회를소집하고 실제 거출할 수량을 문의한즉 겨우 삼만관(三萬貫)밧게 내일수업다 하므로 가까스로 오만관을 내이기로하고 부족분은 북해도로부터 이입하기로한후 십여일전에 동상면에서·실제 매수에 착수한바 구장들의 말과 반대로 맹맥이 집중되여 삼만관도 훨씬 파될 형세이라 각동리에 사람을 급파하야 운반을 중지식히는 동시에 긔위 운반된 것만은 모다 사게되엇습니다 운반된것을 모조리 매상하니 대략 오만여관이엇소 그러나 운반된것중에 호반(湖畔)의것 삼십오관만 남기엇는데 흥칠판계이엇는지? 그부근 사람의거출로 양해를 구하고 그러된것이지? 지금 계원이 좀 잠중이라 자세히는 몰라도 그리할 리유잇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원인은 동경사변으로 예산이 늣게 승인된것과 구장들이 저가 동리안 형편을 철저히 조사치 아니하고 삼만관이상은 거출할수업노라고한것과 호반에도 위선 사람을 보내어 이미 운반된것이상은 반출을 중지하라고 하엿는데도 불구하고 초과되도록 운반한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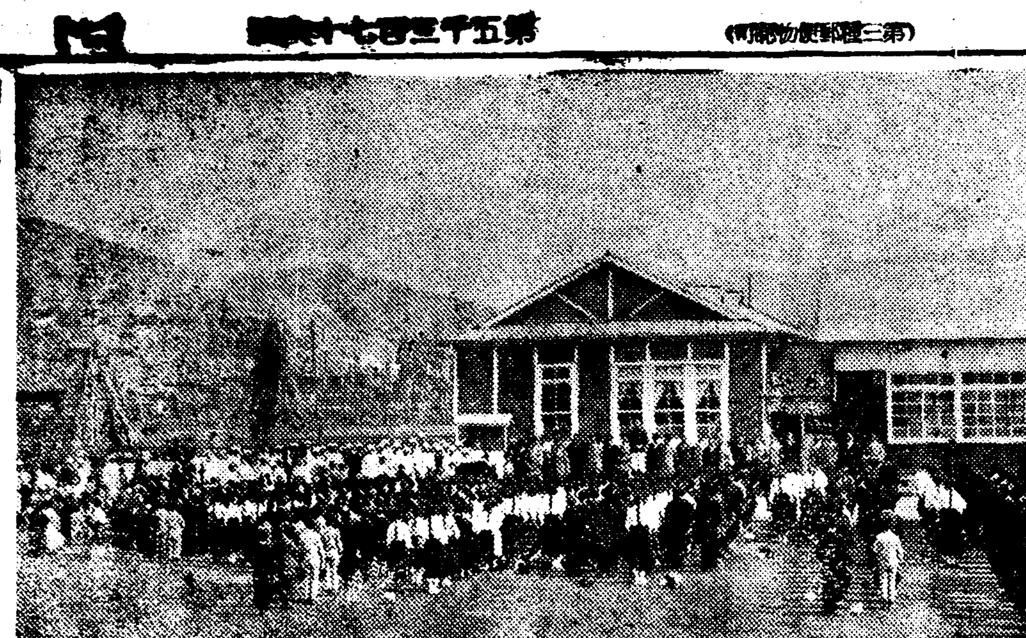
立夏지난이때에 作權無理奪取

舍人某地主暴擧

【舍人】철은이미 립하(立夏)를 지나 파종하기에 한창바뿌고잇다

阿片密輸犯 取調段落送局

【新義州】지난 사월이십칠일신의주서에서 검거한 아편(阿片)여관(貫)밀수범인은 칠일 신의주검사국으로 송치하얏는데 취조한바에 의하면 이십륙일 합난단천(蛤蘭川)으로부터 아편 십



東光學院開院八週年記念式光景(西湖)

無賃乘不應한다고 住民이定期車襲擊

運轉手를無數히亂打重傷 關係者全部檢擧嚴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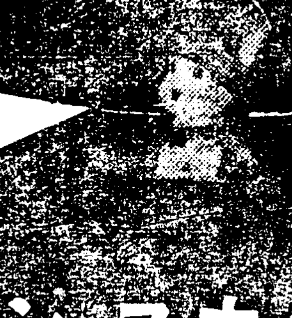
【馬山】재난 오월 오전십일시경에 창원군 진전면 오서리(昌原郡鎭田面五西里)에서는 무임승차(無賃乘車)의 요구에 불응한다고 동민약오십여명이 작당하야 지나가는 마산—통영간 정기자동차인 경남 일신자동차의 운전수 합부석(陜扶石)(二七)을 곤봉과 철봉으로 난타중상시키고 자동차를 부잡고 놋치안흠으로 정긔시간에서 약두시간이나 느저것스므로 우편물과 승객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되엇다 급보를 접한 마산서에서는 서원이 자동차로 현장에 출동하야 관계자를 일제히 검속하야 방금 엄중취조중이라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지난 사일 오후두시경에 전긔 정긔자동차가 오서리를 통과할지음에 동민사오명이 자동차를 정지시키고 『오서리주민에게는 무임승차를 안시키면 오서리를 통과시키지안흔다』고 하므로 한운전수는 그런 요구는 자동차부에 직접교섭하는것이 조흘것이라고 하엿더니 그들은 운전수를 구타하며 정복도 산산히 찌저노흔일이 잇섯고 그다음날인 오일에 도차를운전하야 그곳을 지나노라니 이번에는 약오십여명이 손에는 곤봉과 철봉을들고 계획적으로사건을 일으킨것이라는바 방금 마산우편국에서는 우편물 연착은 체신규칙위반이라하야 문제를 중대시한다고한다

大浦漁業組合 東草港으로移轉

【大浦】강원도 대포어업조합(大浦漁業組合)은 창설이래십여년간의 막중한 업적을 금번신축사무소 속초(東草)항으로 이전케되엿다 속항이말하는 척긔록으로서 어업속초항(漁業東草港)건설에 판건이되는바 일반은 그대에 넘치는 축망을가지고 래일의 진전에 깁버한다고한다

地方人事

▲永田義雄氏(楊平郡內務主任)水原郡榮轉 金允根氏(郡屬)利川郡榮轉 金東憲氏(郡屬)開豊郡榮轉 人事次本報楊平支局來訪

アモンパパヤ 아몬파파야
專賣特許・ハハイン酵素應用・薬用クレーム

美貌의敵을물리치는消息
ニキビ・ソバカス・シミ取り 여드름 주근깨 기미
▲定價 一號 一圓三十錢 ▲二號瓶 一圓八十錢 ▲送料內地十錢 他二十錢
떼파ー트化粧品店·藥店 各雜誌社代理部에서販賣
◎見本進呈 封筒에二錢切手를너어申込하시요說明書付로郵呈함
東京市神田區松住町十二 株式會社 杉田商店 電話下谷局一六七〇番 振替東京七八四六一番

補精强壯劑
眞品海狗腎
說明書請求하시면即時보내드리겟습니다
大洋醫藥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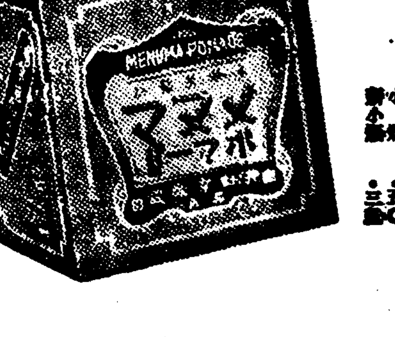
强力 男性ホルモン アンドロスチン

月經催進劑
アゴメンシン 아고멘진

月經過少・月經困難・月經不順・子宮發育不全・代償性月經・乳汁分泌障碍・月經性皮膚疾患・面皰等에適用함 (內服用錠劑及注射液)
文獻 大阪市東區瓦町三和ビル內瑞西バーゼル化學工業會社日本學術部より郵呈
日本總代理店發賣元株式會社武田長兵衛商店 特約店 小西・新薫・鳥居・三共
10—28

淋疾에……ネオチリン 네오지린 먹고첫小便부터안압흡니다
各有名藥店에잇슴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清楚한整髮!
輕快한容姿!
그곳에당신은、美와
魅力과의가장整頓된
한調和를發見치안습
니까?
メヌマポマード 메누마포마도
끈적이지안코・芳香美妙
번득이지안코・洗髮簡便



定價 特大瓶 一二〇 大瓶 七〇 小瓶 五〇 新小瓶 三〇
東京大阪 井田京榮堂
MP35

五月五日부터(晝午後一時 夜七時半開演)
裵龜子樂劇團 春香座 同時公演
今春行樂의總決算으로반드시보아두어야할裵龜子樂劇團公演! 十年의歷史를가진裵龜子樂劇團、練磨洗練된演技와豐富華麗한그內容은諸氏의企待를저버리지안코滿點의賞讚을바들것을밋고勸하는바입니다 여긔에春香座의同時公演이야말노東洋劇場만이敢行할수잇는最大强力의陣容!
一、裵龜子樂劇團出演 大레뷰 『안녕합쇼·서울』 十六景
十六景의興味百퍼ー센트의레뷰를綜合한大레뷰ー로써 朝鮮에서는일즉이보지못한偉觀!
樂劇 『마을의등人불』 樂劇의正道를것는裵龜子樂劇團總動員의大오페렛타!
二、春香座出演 朴珍作 戀愛悲劇 『青春狂想曲』 二幕
青春座올스타캐스트의熱演으로손님諸賢의눈물을흘니게할것이며 아말노演劇에커다란企待를가지시라
西大門町 東洋劇場 電光3 三番

五月七日부터大公開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土曜日曜日은晝夜二回公開 夜七時三十分始映
新春第三回大揮映大會
文藝悲劇 아라시 (一名 사랑의十字架)
누가보든지울지안코는못볼映畫!
大悲劇 잔도의復讐
大悲劇 理想鄕대머리
桃花劇場

"低金利의 影響"

銀行預金에서 다가 土地에 投資하야될가

●…申泰翊

銀行利子는 銀行의 定期預金利率로 보아서 農土에 投資를 하는데는 그보다 利子가 나흔데이며 또 이것과 反對로 貸出利率을 標準하여서는 農土投資의 利率과 別로 큰差가 업슬뿐아니라 어느때는 等이 흔히 貸出利子가 高率로도 된다는것을 말하엿다 그럿치만 오늘에 잇서서 事實的 金利의 低率하야 農土投資를 促進하는 條件으로 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銀行의 預金利子가 차젓슴으로 그보다 利回가 나흔 農土를 사서 만흔利潤을 보자는것이 農土의 投資熱을 鼓吹할 이에서 가장 뒤에는 作用을 하기로는 勿論이다 그러나 오늘에 投資를 하야잇서 그러할만한 農土가 果然 低金利와 反比例하는 利潤의 增進이 可能하나 或은 可能性이 업느냐 하는 그의 實情에 對하야 充分한 認識의 把握도 不可缺의 一條件으로 된다.

×

그럼으로 農民에 따러서는 銀行의 定期預金이 利下되엿다고해서 이것을 빼어다가 그돈으로 農土를 사는것이 預金利率보다 밤웃이 利潤가 만커질것이라고 말키어렵다 또는 이것과 反對로 貸出利子가 農土의 利潤보다 크다고 하드래도 때에 따러서는 銀行에서 빗을 내여 農土를 사게되는 境遇도 잇을것으로 생각한다 왜-이러케 말하느냐고 하면 農土의 相當的인 農土 그중에도 低金利로인한 影響을 밧게되는 一面 그自體의 投資的 利潤을 보게된다 即 이곳에서 主要投資의 相當함을 살고잇는 農土의 市價가 어떠한 位置에 잇느냐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동안 別로 騰貴되지안엇든가 騰貴되엿다고 하지만 아직도 騰貴될 餘地가 잇느냐 或은 거의 그限度에 이르렀느냐 하는點 그리고 將來에서 產出되는 米作이 豐年이냐 凶年이냐 하는 그收穫 또는 米價高가 아즉도 騰貴할 餘地가 잇느냐 或은 全然 업느냐 하는點等도 農土의 投資에잇서 不可分의 큰 關係를 맷고잇다。

×

이러한意味로 銀行의 定期預金利子率보다 農土의 利潤이 만흔 點이라고 하여서 利子를 [illegible] 또는 貸出利子率이 農土의 利潤보다 크다고 해서 그農土의 不利를 말할수업는 理由가 이곳에 잇다 그러면 오늘과 가튼 米價高의 低金利時代에 잇서서 農民의 農土에 對하야 銀行의 定期預金을 빼어다가 사거나 高利의 빗을 내여서라도 사서 그 以上의 利潤이 手中에 드러올수잇다고 보아야 올흘가 그렇지안흘가 [illegible]

그러나 農土에잇서서는 [illegible] (續)

金密輸根絕코저 地金商을 免許制

强化되여가는 產金保有政策

財務、警務兩局硏究

政府의 產金獎勵는 年額三千萬圓에 達한다고 推定되던바 過般의 產金買上價大幅引上에 依하야 거의 全額이 期待되는터인데 朝鮮總督府에서는 金地金取扱商을 免許營業으로 하고 取締를 嚴重히하고 密輸의 徑路를 根絕코저 財務、警務兩局에서 硏究를 進行하고잇다한다

中小商工業金融 積極的으로하자

◇…殖商銀專務視察歸來談

日本內地金融情勢 中小商工業金融의 實情을 視察키爲하야出張이던殖銀專務는 七日午後二時二十分歸任하여 如左히 말하얏다

日下金融界의 重要問題는 公債消化如何와 中小商工業에對한 金融方策인데 中小商工業金融은 社會政策上 큰問題인바 地元銀行으로서도 特히考慮하여야 할것으로 이에對한 成案이되면 實行에 參考코저考慮하고저한다

日本內地의 中小商工業金融의 對象은 大體三階級에 分하야잇스니 即

一、一階級은 相當히 信用이잇고 擔保力이 잇는者

二、二階級은 相當히 努力하야 技術手腕이 잇스면서도 財力이업는者

三、三階級은 그以下의者

의三階級이바 第一階級에 對하야서는 興業銀行이 政府補償下에 一日五千圓 乃至三千圓의 金融을 行하야 順調한 成績이오 第二階級은 個個의 信用으로는 去來가안됨으로信用의連絡으로서 行하고產業組合中央金庫等이 組合精神의發揚을 내세워 盛行되엿다 第三階級은 모든方面의 意見을 徵하얏는데 營利事業으로서全혀 方法이 업다한다 要컨대 第二、第三의 階級에對하야서는 社會奉仕的 金融이 必要한터로 當行과가튼 京城의地元銀行으로서도 第一階級에對한金融은 行하고잇서 一日平均二千八百圓으로 이미實施中이나 遲히 金利等도 低下하야 中小商工業金融에 努力하고저하는데 이에는政府의 補償이 絕對必要하다云云

金融懇談會 日銀에서開催

【東京電話通信】日銀全國의 金融懇談會는 八日 正午로부터日銀本店樓上에서 열고 特히 大藏省에서는 上山日銀監理官이列席하야 一同이午餐을 한가지로 한뒤 淸水日銀副總裁로부터 三月以後의 金融情勢 그中 當局의 低金利誘導策에基한 低金利의 實際的進行狀態에關하야 詳細히說明하고 深井日銀總裁를中心으로 金融界當面의 諸問題에 對하야 意見의 交換이 잇고 午後三時에 散會하엿다한다

郵貯利子當分不變

馬場藏相이言明

【東京電話通信】馬場藏相은 七日午後 衆議院本會議의 勝正憲氏(民政)財政質問에 對한答辯에 잇서 郵貯利子引下에 言及하야 政府는 將來는 別問題로하고 當分公債의 利率을 三分五厘 据置로 하엿스며 따러서 公債의 金利引下로 되는 郵貯利子의引下에 對하야는 생각한것이업다고 答辯하엿다 또 藏相은 就任當初에는 郵貯가 國民大衆經濟에 重大한 關係가잇는 意味로 그利子引下는 國民生活에 至大한 影響을 미칠것으로 다른一般金利引下와는 別問題로 考慮할것을 言明하엿스며 公債利率三分五厘가 當分 持續하면 金利勸從으로 보아 郵貯利子引下는 때리實現치안흘것으로 觀測된다고한다

法貨防衛에注力

佛國金流出顯著繼續

【巴里七日發同盟】法貨의 危機가 매우深刻하야 佛國銀行은 畢竟六日에 公定步合을 一擧에 六分으로 내려가지고 法貨防衛에 總注力을한다 佛國으로부터 米國에 流出한 金은 六日까지 이미 五百五十萬弗(十一億法)이 概算됨을 七日 發表하엿다 同行佛國銀行週報를보면 同行의 金保有高는 十一億五千九百萬法이 激減하야 六百七億六千八百萬法으로되엿다고한다

四月滿洲貿易

【新京發商通】滿洲國의 四月中貿易高는 輸出六千九百二十萬六千圓 輸入六千九百二十七萬七千圓으로 七萬一千圓의 入超를 示하얏는바 이것을 前年同期와 比較하면 輸出入 共히 輸出이 顯著히 增加한바 이것은 滿洲國의 主要輸出品인 農產物의 出廻旺盛으로 因한것이라고한다

滿銀其他 利下決定

十一日부터實施

【新京七日發同盟】日本內地低金利에 追隨하야 滿洲의 金利引下는 時日의問題이더니 中央銀行及朝鮮銀行에서는 同行協定에 依하야 다음과가티 決定하고 十一日부터 實施키로되엿다

▲國幣預金

一、安東、奉天、新京、哈爾賓、營口의五都市

定期六個月以上年三分二厘(三厘下)

通知 日步九厘 (一厘下)

特當 日步七厘 (一厘下)

當座 日步二厘 (据置)

二、其他의地方

定期

六個月以上四分二厘 (三厘下)

一個年以上四分七厘 (三厘下)

▲金圓預金

定期六個月以上三分五厘(三厘下)

通知 日步七厘 (据置)

特當 日步六厘 (据置)

當座 日步二厘 (据置)

그리고 이에依하야 金圓、國幣定期預金利率은 從來五厘의差에서 四厘로縮少되엿다한다

群少非合同運送 千餘業者漸衰運命

朝運의特割扱成績荷主에大便利

鐵道局의 運送合理化方針에伴하야 指定運送會社인 朝鮮運送株式會社는 水原天安及京南 京東兩鐵道各驛에의 小口貨物直通扱(⊙特割扱)을 實施하고 京南京東各地荷主와 懇談會를한結果運送店側으로도 好績이오 荷主便으로서는 從來에比하야 京城서의取引貨 着驛까지의 配達費等이不要케되엇슬뿐아니라 運賃도 從來보다 四、五割低廉하며 時間도 京城서午後八時까지 集荷되것은 翌日午前七時에 原州가튼遠距離驛까지도 午後五時頃에는配達이 完了되어 日本內地 宅扱同樣의 利便이잇는것이 判明되엇다한다。

이에 對하야 非合同 運送業은 이러한制度가업서 鐵道局에對하야 朝運과가튼 特權附與를 政治的運動코저하는一方 計算機關의合同(丸計、丸ㄱ)을決定하고 今月十六日의 役員會에 合同案을 附議키로 되엿다하나 이것이 合同된다드래도 不過四十萬圓의 計算會社에 不過할것으로朝運에 對抗할수업슬것이고 鐵道局으로서는 當局方針에 不合한 僅少資本의 非合同計算機關을 그리認定치안흘것이며 朝運同等의 特權附與云云은 常識的으로 判斷할지라도 可望업는일로서 朝運이 積極的으로 叙上의荷主利便을 주는 營業方針을 擴大할수록 群小非合同業者의 營業은 加速度的으로 打擊을바더 漸衰의運命에陷코야 말것이마콤 千餘非運合業者의 前途는 자못重視되는 터이라한다

殖銀人事異動

殖銀에는 五日附로 支店長의 異動이잇섯 [illegible]

經濟解說

"法貨의動向"

❶…今後事情考察

四月廿六日과 五月三日의二次에 亘하야 擧行된 佛國總選은 左派民衆戰線의 大勝利로도라가고 左派中에도 社會黨이 第一黨으로되엇다 佛國政府는 五日緊急閣議를 열고 사로-首相以下가 出席하야 總選擧後의 政局에對하야 協議하엿는데 社會黨이第一黨으로 된以上 急進社會黨에 재리를 쓴 사로-首相은 憲政의常道에 基하야 五月卅一日 議會召集과 同時에 總辭職을 決行할것으로 보인다 다음의內閣은 社會黨首領 레온·뿔름氏의손으로 組織될는지 아즉 모르나 社會黨을中軸으로하는 民衆戰線派가 今後의政局을 擔當할것은 거의 旣定의事實이다。

×

그러면 左翼 되구나 社會黨의政綱은 어떠한것인가?

一、外交政策으로는 國際聯盟의擁護、其他諸條約을 中心으로하는 集團保障、相互援助政策을 維持

二、國內政策은 政治的으로는 파쇼排擊、經濟的으로는 公共事業의振興、產業의開發、失業의救濟、消費者의購買力增加를 圖謀、이로因하야 資本課稅、佛國銀行의改組、法貨平價切下를 主張하는 急進論도잇스나

三、法貨平價切下에 對하야는 社會黨의政綱으로 主張하는것이아니나 佛國國民生活全體로 切下는 不得已物價가 떠러저 消費의萎縮、失業의增加를 招致할것이다。法貨平價切下에依하야 金과商品과의關係를 安定케하면 不可避的으로 物價가 騰貴케될것이다 어떠튼지 勞働者는賃銀者中 어떤것을 取할것인가 하면 可能한것은 切下의길이다 國際的으로 佛國만 孤立한것은 不可能하고 이미 法貨維持의犧牲은 그대지 大치안타 때문에 切下中 어떠한것이든지 困執하는것이 아니나 後者가 實現의可能性이 잇는 境遇에는 이것을 不辭한다는것이다 이에對하야 社會黨黨首블럼氏는 當時부터 다음과 가튼意見을 가지고 이것을 聲明하엿다。

×

法貨平價切下運動의 眞相은 要컨대 銀行資本과 產業資本과의利益爭鬪에 不過함으로 無產大衆의 相關이 업다 그러나 이것이 現實問題로 된以上 그對策을 생각지 안흘수가 업다 社會黨으로서는 通貨의安定에 重點을 두는바 通貨와 金과의 關係를 安定케하면 金價의 騰貴에 떠러서 以上 그見地에 立脚하야 對策을 생각하여볼일이다。

佛國의 總選擧는 以上과 가튼主張하는 黨派를 第一黨으로 選出한바 그直接의 影響은 어떠한것인가를 略述할것잇다

一、法은 急角度로 軟化하엿다 지난四日로부터 外國爲替市場의 法貨는 實物이 殺到하야 爲替平衡資金이 出動하야 買支하엿스나 何等效果가업다

二、米國을 向하야 金의流出이 積極旺盛하고 그라게 倫敦市場에도 資金의 逃避는교 南關金鑛株가 買殺되고잇다

三、左派에서 미워하는 佛國銀行에서는 緊急理事會를 열고 利上을 斷行하엿다

—(續)—

經濟界消息

▲金融組合聯合會釜山支店長(前釜山支店長)今川龍吉 ▲金融組合聯合會平山作太郎 [illegible]

○慶南金融組合聯合會의 [illegible] 總會는 [illegible] 卄八日부터 三十日까지 [illegible]

○大日本化學工業會社(資本金一千萬圓四分一拂込)는 朝鮮에서 [illegible]

經濟寸鐵

日本內地 糯米不足바람에 朝鮮의 糯米도 날개돗친것가치 八日은 白米 漲騰

○京城의 米穀商인 大衆이 얼마나 만흘것인가

○產金買上價를 大幅引上하야 產金獎勵에 一步前進하야 金銀地金取扱商을 許可制로 하고저 財務、警務兩局에서 硏究中이라고

○雨後竹筍가티 구엇가게식 地金商一派時代

○朝鮮人의 [illegible] 地金商時代가 살기조케될것인가 두고볼것이다

株式 下弛

商況(八日) 戻賣物로

前場寄合 弗進一巡의 市勢는 俄然氣力이 업시 一面 戻賣도 마차와서 高價寄合으로比하야 東新二十錢高인 百三十二圓八十錢、日產二十錢低인 二十三圓九十錢、鐘新七十錢低인 百五十一圓五十錢、朝取六十九圓丁、日產新二十錢低인 二十一圓五十錢에 各大引新二十七圓四、五十錢、北紙二十圓六、七十錢、石十八圓二十錢이엇다

▲東新 [illegible]

後場低落 後場은 凡調寄後大阪低로 東新百三十二圓九十錢 日產七十二圓五十錢 大新七十四圓五十錢 鐘新百五十圓七十錢 新二十七圓四十錢에 各大引低落

議會平凡은 무엇을意味

統制經濟와 增稅의 輪廓이 議會에서 質問應答에 判明되리라 보아 不安도하고 期待도하얏스나 藏相은 具體的方針을 提示함이업고 議員도 追窮치 아니하야 이대로간다면 議會는 別로 惡材料가 업슬 [illegible]

取組의僅少 非樂觀材料

市勢가 上放되엇스나 跆物은 아즉도 남어잇는모양갓고 取組가 적은것을 興味로도 보는 사람이 잇스나 事變市勢의 特異的現象에 不過하나 樂觀材料가 아니다。議會後에 四國情勢가 判然케된다면 軍需關係의 諸株를 先驅로 活況에 展開될것이 想像되며 低金利의 惡影도 今後 남어잇기는 하지만 果然 그時期가 언제일지 또 다른 事態나 惹起치안흘지 警戒心은 不急인 모양이다。

東拓六分配當說

東拓은 五分配說—六分配說로 東京市場에서 買物을 呼하기때문에 今日 入龍 東京現株市勢는 舊四十圓 新二十二圓十錢으로 保强이엇섯다。

實物前場取引

▲大同產業三〇〇 ▲日立製作所三〇〇 ▲小田急行一〇〇 ▲帝都電鐵一〇〇 (取引高合枚)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通信】全利氣乘薄으로 市中閑散不活發商狀이엇다

甲五分利 不申

一回四分利 一〇〇、七五

二回四分利 一〇一、九五

佛貨四分利 一九八、五〇

期米 伸悩이나 强硬

前場少弛 昨後場 阪地三十三圓一十二錢止와 共히 三十圓八十八錢에 壽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 三十三圓二十五錢인 三丁反高를 搏하고 三十圓九十四錢인 六丁高로 壽을 結한後 阪地十三錢까지 下押하엿다가 二十錢으로 十七錢에 止壽함을 伴하야 四節八十一錢으로 反히 十九錢까지 返戻하엿다가 結局 八十七錢에 壽을 止하엿다

資金涸渴과 局面打開難

[illegible]

利喰賣로小押

下押後엔底堅

後場頑强 後場은 三十圓八十二錢에 五丁低로 [illegible]

渡米의蒐集과 期正의今後觀

[illegible]

市場六感

株 市勢는 維伸維押의 高價保合을 [illegible]

米 新東股會後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閑散 取米伸悩으로氣配不高이나마 取引은 依然적엇다 丸仁三等三十圓十錢 四等二十九圓八十錢 一等白米三十一圓五十錢

仁川不變 日本內地賣付一巡의무이라 今朝期米가 不活潑하야 市況이不活潑하야 [illegible]

釜山稍强 [illegible]

大邱保合 [illegible]

群山强含 正租高의 後援을受하야 市況은 依然强堅推移하얏스나 [illegible]

木浦同調 連日昂騰을 呈한뒤이만큼 取引比較的적어 價位警戒가 强하야 丸木三等三十圓三十錢 四等三十圓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土金 石金 高價買入 金華堂 長電七一二番

期米 福 吉村榮左工門商店

光 康益夏商店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株式會社金益證券 電話本局②一五八一六番

土金 石金 福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銀·白金·地金部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電話本局四八五六

今日財界(八日)

[illegible]

金融(八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行券◆ [illegible]

◆日本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米國(八日)

◆對外爲替◆ [illegible]

◆金貨入價◆ [illegible]

◆東京市中純金價◆ [illegible]

◆京城市中金價◆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八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綿油相場◆ [illegible]

◆阪神粕肥相場◆ [illegible]

◆天津豆粕相場◆ [illegible]

◆日本棧務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實物代引日步◆ [illegible]

期米(八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商品(八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賣方=東京側地場神戶側 ▲買方=永岡의松本地場當系 [illegible]